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한인 천재소녀 합격 주장에 하버드 '위조 맞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최초 동시합격 주장
한국 언론들 여과 없이 대서 특필
결국 천재소녀의 자작극으로 추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앞다퉀 데려가겠다는 '천재 수학 소녀' 김정윤 양(18)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합격 통지서는 위조된 문서이며 대학 교수들과 주고 받았다는 이메일 내용 또한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나 코웬호번 하버드대 공보팀장은 지난 10일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버드와 스탠포드에서 각각 2년씩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양이 받았다는 합격증을 살펴본 결과 위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버드의 합격증 양식은 이미 공개돼 있는 것으로 종종 위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코웬호번 팀장의 말이다.

스탠포드 대학 측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 리사 라핀 스탠포드 대외홍보담당 부총장은 김 양의 합격증은 스탠포드에서 받



하버드와 스탠포드 측은 지난 10일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윤 양이 언론에 공개한 합격증이 위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한 것이 아니며 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김 양의 어머니는 하버드와 스탠포드, MIT의 수학과 교수들이 김 양의 논문을 극찬하며 천재성을 인정, 김 양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 했다고 밝혔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과없이 한국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화제를 불러 일으켰지만 한 미

주 한인 커뮤니티가 김 양 가족의 주장이 허위임을 지적했고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한국 언론은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본지 인터뷰 내용과 마찬가지로 김 양의 합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함에 따라 위조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김 양을 추천했다는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두 교수 모두 그녀를 알지 못했으며 MIT 교수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넥슨 사에서 근무하는 김 양의 아버지는 "아이와 하버드의 해리스 교수가 6개월간 주고 받은 이메일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공식 입장을 비롯해 여러가지 증거 자료가 제시되자 한국 언론에 "미국으로 건너가 경위를 파악한 후 설명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 양의 소식을 보도한 미주 중앙일보의 전영완 객원기자는 지난 10일 오보를 인정하고 "교수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들도 구체적이어서 확신이 들었다.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3면으로 계속



귀국 택한 한인 유학생 메르스보다 비자 걱정

"메르스,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발열검사, 방역조치 등 입국 심사 까다로워질 전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국의 메르스 확산 사태에 미국 보건 당국은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며 경계태세를 갖추고 나섰지만 막상 방향을 맞아 한국에 돌아가는 많은 한인 유학생들은 '별 일 있겠냐'는 입장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5일 국내 메르스 발병을 3단계 공지 등급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주의'로 분류했으며 8일에는 한국 여행객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지해 사실상의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오는 16일 한국 귀국을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할인항공권 전문

From **\$1095**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비수기 특가

대한항공+국내선 (뉴욕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출발기한은 2015년 7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또한 발권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항공권 예약상황은 실시간으로 변동되며, 이에 따라 항공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tokorea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e N.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Dir: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e@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Direct: 617.642.5670
won@bostonpremierrealty.com jason@bostonpremierrealty.com

파란만장한 임기 끝낸 한선우 전 한인회장 고별 인터뷰

“한인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투명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역대 한인회장 중 가장 파란만장한 임기를 보냈다고 평가받는 한선우 38대 한인회장이 지난 9일 본지와와의 고별 인터뷰를 통해 다사다난한 순간들을 마주했던 속내를 털어놓았다.

한인회 사상 최초의 천 명 한인회비 납입과 최초의 소송사건, 최초 비영리단체 자격 박탈 등의 사건을 겪었던 한선우 회장은 지난 임기를 되돌아보며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2년의 임기와 4개월의 비상체제를 끝마친 한선우 회장의 말 속에는 이토록 파란만장한 임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과 시원섭섭함이 뒤섞인 듯 했다.

다음은 한선우 전 회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임기 첫 해에 천 명의 한인들로부터 한인회비를 걷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매년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한인회비를 내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천 명의 회비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

많은 한인들은 만나며 느낀 건 보스톤의 한인들이 표현을 안하고 무관심해 보이지만 수준 높은 한인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한 번 해보자’ 는 의지에 한인들이 호응해준 것 같다. 중간에 소송 사건에 휘말

리는 등 구설수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천 명 이상의 회비를 성공적으로 걷을 수 있었다.

소송 사건의 전개를 설명해달라

예전에 언론에서 공개된 바 있다. 전 한인회보 편집장 Y 씨의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된 합의금을 두 번 가랑 지불하지 못해 다시 \$25,000의 금액을 한인회가 떠맡게 된 것이다. 회장이 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당혹스러웠지만 법은 법이지 않나. 한인회가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많은 분들이 내 잘못도 아닌데 힘들어 한다고 도네이션(기부)을 많이 해줬다. 특히 천 명의 한인회비를 걷었던 것이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

이임사에서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 가 이와 관련이나

소송과 관련해 2006년부터 세금보고가 안되어 있는 것은 이듬해(2014년) 6월에 처음 알게 됐다. 9월에 소송 사건을 겨우 해결했는데 또 이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더라. 거의 10만불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문제점을) 드러내서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전부 실타래처럼 엉켜있었다. 법적 문제를 또 다시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새로운 한인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인회) 운영의 투명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은 단지 한인회장이 개인용으로 돈을 쓴다던가 지출내역이나 영수증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한인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한인 들끼리 뭐 어때’ 라는 생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을 고용하고 신문을 발행하는 데에 있어 예외 없이, 편법 없이 확립된 매뉴얼을 따라야겠다. 물론 사람 사는 사회라 쉽지 않다.

매뉴얼이란 회칙을 말하는 것인가

꼭 회칙을 말하는 건 아니다. 사실 한인회에 오래 있다보면 회칙을 잘 안 지키는 것이 다반사다. 오래 있는 사람일 수록 회칙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인회에 ‘물갈이론’ 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다.

한인회장으로 아쉬움은 없나? 임기가 더 주어진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세금 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인 들에게) 미안하다. 임기가 더 주어진다면 세무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할 것이다. 그 때는 (세금보고 누락)을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해 볼지도 모른다.

이사로서 한인회에 다시 한 번 봉사하게 되었다. 다짐이 있나

김경원 회장이 열심히 추진하는 것처럼 신나는 한인회, 웃을 수 있는 한인회, 좋은 일이 늘 있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 한인회장직에서 물



지난 5월 2일 열린 이취임식에서 이임사를 전하고 있는 한선우 38대 한인회장

러나면 한인회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인회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보람을 갖고 봉사하겠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과없는 대서특필, 뒤늦게 허위 사실 확인 '충격'

▶▶1면에 이어서

한편, 양미아 심리치료 전문가는 “(김 양에게서) 나르시시적 성격장애와 일종의 소시오패스의 증상을 진단할 수 있다” 는 견해를 밝혔다.

양미아 씨는 “농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할아버지와 미국 고관 출신의 고모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아버지를 보며 성장한 김 양은 가정환경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 밝히며 “자연스럽게 성과를 얻어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됐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김 양은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도취,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공상 허안증) 그것을 마치 사실인 마냥 믿어버리는(회생성 기억조작) 단계까지 이르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미국 명문 고등학교로 손꼽히는 버지니아 소재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정윤 양은 수학 천재로

인정받아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비롯한 여러 명문 대학의 합격장을 받았다고 주장해 국내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았다.

김 양은 지난 4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커버그(페이스북 CEO)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놀랐다” 며 “제가 외국인이라 제약도 많았고 전혀 힘이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라며 공부 비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5일에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버드랑 스탠포드 대를 동시 입학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 때문에 잠깐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주신 것” 이라고 답했고 “어느 대학 졸업장을 받느냐” 는 질문에는 “제가 나중에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아마 하버드 졸업장을 받을 것 같다” 고 말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미 보건당국, 한국 여행 주의보 발령 "가급적이면 피하라"

▶▶1면에 이어서

앞둔 안초영 씨의 말에 의하면 하버드 연구소에 있는 한 지인은 학교로부터 “가급적이면 한국 여행을 피하라” 는 이메일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이같이 예민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한인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며 주저없는 귀국 의사를 밝혔다.

오는 7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장은지 씨(가명, 보스턴 대학 1학년)는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로 접하는 한국의 상황은 나름 심각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위험한 것 아니냐” 고 말했다.

노스이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송현경 씨도 “생각보다(메르스 사태에 대해)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없다” 며 “갈 사람은 다 가더라” 고 전했다.

이처럼 유학생들이 가진 메르스에 대한 인식은 미국을 포함해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다른 나라의 조심스러운 입장과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한국인들의 안전불감증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일(한국시간) 기준으로 한국의 메르스 확진자가 122명, 사망자 10명, 격리자 3천 8백명에 육박함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내 공항과 입국심사, 방역당국에 한국 여행 주의보를 공지했다.

메르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한국으로부터 도착하는 미국 방문객에 대한 발열검사와 방역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돌아오는 유학생들은 이에 따른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앞서 인터뷰에 응한 안초영 씨는 “한국에 이미 들어간 지인들 중 몇 명은 돌아올 때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처음엔(나도 메르스 사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한다” 고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마신형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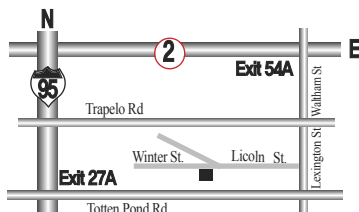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미주태권도교육재단(USTEF)이 주최한 타임스퀘어 태권도 축제에 참가한 1,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절도있는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뉴욕 태권도 축제 "자랑스러웠다"

1,500여명 화려한 태권도 시범 선보여
뉴욕, 관광객 이목 집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주태권도교육재단(USTEF)의 제 7회 태권도 축제가 지난 5일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빛속에서도 절도있는 모습으로 품새와 격파, 겨루기 등의 시범을 선보인 1,500여명의 태권도인들에게 참가자가족들과 관광객, 뉴욕 시민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미주태권도교육재단 이사장으로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경원 한인회장은 "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단련한 신체와 정신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열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태권도가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기환 뉴욕총영사는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이들에게 태권도 정신을 알리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챔피언이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태권도 퍼포먼스를 세계인과 소통하고 태권도 수련을 통해 강인한 정신으로 성공하는 인물들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태권도 퍼포먼스 외에도 K-POP 댄스, 난타, 한인 합창단의 아리랑 공연 등의 다채로운 한국 문화 행사가 이어졌다.

한편, 한인회의 초청으로 이날 태권도 행사에 참석한 40여명의 한인들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전하며 아울러 "기회를 제공해준 김경원 회장과 한인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에는 뉴욕과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동부지역과 멕시코에서 총 35개 학교와 도장이 참여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브로드웨이 투 보스톤 '뮤지컬 레디스' 무료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 뮤지컬 배우와 음악인으로 구성된 브로드웨이 투 보스톤(B2B, 대표 헤더 리)의 "뮤지컬 레디스(Musical Ladies)" 공연이 오는 20일 토요일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열린다.

보스톤한인교회 국내선교팀이 주최하는 '오아시스카페 뮤직 나잇(Oasis Café Music Night)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에는 정종은, 헤더 리, 이안 디프리스트가 배우로 참여하며, 재즈 피아니스트 심규민이 건반을 맡는다 (연출 헤더 리, 음악감독 로빈 초).

보스톤한인교회와의 합동 무대로 펼쳐지는 이날 공연은 무료 입장(관장 기부금 \$10)이며 문의는

보스톤한인교회(617-739-2663)로 하면 된다. 한미문화재단(Korean-American Cultural Foundation of Greater Boston)과 보스톤한인교회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보스톤 투 브로드웨이는 지역사회 봉사의 뜻을 공유하는 젊은 음악인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음악단체로 보스톤의 음악인들에게 지역 사회를 위해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생활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졌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6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보스톤한인교회(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사고팔고 물건들, 폰으로 찍어 올린다

아이폰, 태블릿으로 사진 업로드 가능해져
일일 순방문자 5천명 중 30%는 아이폰 및 태블릿 사용자



아이폰, 태블릿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에서 직접 보스톤코리아 기사판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오는 12일 금요일부터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과 태블릿 기기에서 직접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스톤코리아 측은 “기존에는 아이폰이나 태블릿 사용자들이 해당 기기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스톤코리아 게시판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다”며 “이번 웹사이트 편집 기능을 통해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불편함이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보스톤코리아(editor@bostonkorea.com)로 문의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의

일일 순방문자(UUnique Visitor)는 4~5천명으로 이 중 30% 이상이 아이폰 또는 태블릿 이용자이다. 웹사이트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하루 평균 500여명 이상의 순방문자가 보다 편리해진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60 상당 에너지 절약 패키지 신청 답지

5일만에 70여명 신청, 30일 신청 마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에너지 절약 패키지 무료 배부에 보스톤 한인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 5일만에 무려 70명 이상이 신청했다.

올해 패키지에는 \$16 상당의 절전형 LED 전구 두 개와 \$30 이상 상당의 7구 멀티탭이 포함된다.

지난 2년간 한인회를 통해 절전형 전구를 대량으로 기부해온 유강조 씨는 “올해는 특별히 \$60 상당의 패키지를 기증하게 되었다”며 “많은 한인들이 무료 패키지를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씨는 “6월 말 신청자 명단을 받은 후 (전구 회사에) 수량을 주문하면 1~2주만에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헌절(17일)에 배부하는 것도 한인사회에 의미있는 일이 될 듯

하다”고 전했다.

에너지 절약 패키지 주문은 보스톤코리아 이메일(bostonkorean@hotmail.com)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반드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한 가정 한 개의 패키지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신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신청 마감은 6월 30일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쉽고 간편한 효도 라디오 선물하세요

성경, 찬송가듣기 및 가요 5200곡 수록

내장되어 있는 가요 5200곡과 성경, 찬송가를 들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연결해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제품 전면에는 LED 액정에는 재생되고 있는 곡, 라디오 주파수, 배터리 잔량 등이 표시되며 비상 시에는 휴대용 랜턴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손쉬운 작동법으로 흥겨운 트로트부터 최신 가요, 성경과 찬송가까지 모두 들을 수 있는 효도 라디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효도 라디오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제품으로 주머니나 가방에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숫자버튼을 이용한 간편한 작동법이 가장 큰 장점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인기있는 선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FM 라디오 청취는 물론 제품에

트로트를 포함한 가요 5200곡과 성경, 찬송가가 모두 내장되어 있는 효도 라디오는 \$79에 구매할 수 있으며 가요 혹은 성경, 찬송만 지원되는 효도 라디오는 \$69이다.

효도 라디오 주문 및 기타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617-955-9112)으로 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 밤 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돌아온 피킹 시즌, 초여름 가장 달콤한 딸기와 체리



해보는 것은 어떨까.

▶ 토가스 가족 농장

246 Ball Street Northborough, MA 01532
508-393-6406
tougasfarm.com

토가스가족 농장(Tougas Family Farm)은 매사추세츠 주의 대표적인 과일 농장으로 지난 3월부터 딸기 피킹 시즌이 시작됐다. 입장료는 \$5(2세 미만은 무료입장)이며 딸기는 파운드당 \$3.99이다. 한창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는 체리의 피킹 시즌은 6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스몰락 농장

315 South Bradford Street North Andover, MA
978-682-6332
smolakfarms.com
3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스몰락 농장(Smolak Farm)의 딸기 피킹은 6월 중순, 체리 피

킹은 6월 말에 시작할 예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웹사이트에 공지된다. 알파카, 염소, 빨닭 등의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으며 수십여 가지의 꽃과 허브가 매력을 내뿜는 그린하우스 정원도 스몰락 농장의 놓칠 수 없는 볼거리이다.



▶ 팔리 농장

95 Farwell Road, Tyngsboro MA, 01879
978-649-3854
parleefarms.com

1988년 2에이커의 딸기 밭으로 시작한 팔리 농장(Parlee Farm)은 현재 93에이커에 달하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각종 과일과 채소, 꽃을 재배한다. 딸기와 체리 피킹은 각각 6월 셋째 주와 6월 말에 시작할 예정으로 체리 피킹 시즌은 약 3주 동안만 지속된다. 1,400그루의 체리나무는 낮게 자라고 있어 아이들도 손 쉽게 딸 수 있다.

▶ 러셀 오차드

143 Argilla Rd, Ipswich, MA 01938
978-356-5366

russellorchards.com

입스위치 소재의 러셀 오차드(Russell Orchards)는 피킹 뿐만 아니라 딸기 축제, 조랑말 타기, 와인 테이스팅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늘 풍성하다. 24개 종류를 자랑하는 딸기는 오는 12일부터 딸 수 있으며 체리 피킹은 7월이나 시작될 예정이다. 딸기는 파운드당 \$3이며 입장료는 \$3이다. 딸기가 들어간 각종 음식과 게임이 마련된 딸기 축제는 27일과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 김벌 과일농장

184 Hollis St, Pepperell MA 01463
978-433-9751
kimballfruitfarm.com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의 경계에 위치한 김벌 과일농장(Kimball Fruit Farm)은 뉴튼, 캠브리지, 벨몬트 등 매사추세츠 여러 지역으로 과일을 판매하며 많은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는 곳이다. 딸기 피킹은 오는 13일에 시작할 예정이며 체리는 직접 딸 수는 없지만 농장 관계자가 미리 따놓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쌀쌀한 날씨가 유독 늦게까지 이어진 올해는 피킹 시즌 또한 다른 해보다 살짝 늦게 시작된다. 피킹 시즌만을 기다려온 제철 과일 팬들을 위해 매사추세츠 주 농장들은 제철을 맞은 딸기와 체리가 빨갛고 먹음직스럽게 익어간다는 신나는 소식을 하나 둘씩 전해온다.

딸기 또는 체리 피킹을 갈 때에는 과일 물이 들 수 있으므로 흰 색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레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 소매를 입거나 벌레 퇴치제를 충분히 뿌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농장은 방문 전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며, 농장마다 피킹할 수 있는 과일과 시기가 다르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면을 통해 딸기와 체리를 피킹할 수 있는 매사추세츠 소재 농장을 소개한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맛있는 제철 과일도 먹고 즐거운 농장체험도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메인한국학교, 종강식 및 종이접기 워크샵 성황

종이접기 작품에 외국인 참석자 '감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메인 주 포트랜드 시에 위치한 메인 한국학교(교장 신영옥)가 지난 7일 일요일 종강식과 종이접기 워크샵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종강식에서는 한 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되었으며 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영옥 메인한국학교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학부모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애쓰신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종강식이 끝난 후에는 종이접기 워크샵과 작품 전시회가 이어졌다. 워크샵 강사로 참석한 윤미자 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협의회 회장은



지난 7일 메인 주 포트랜드에 위치한 메인한국학교의 종강식 및 종이접기 워크샵이 개최됐다

학생과 어른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를 배우고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시회 작품으로는 딱지접기를 이용한 태극기, 장구, 소고, 태극 변형접기 작품, 한복, 궁중 의복, 복주머니, 꽃 등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외국인 참석자들이 한국전통문화 종이접기 작품에 찬사를 쏟았으며 종이접기 배우기를 희망했다. 입양아

학부모들은 종이접기 한국전통놀이를 자녀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신영옥 교장은 “바쁜 일정에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좋은 워크샵을 이끌어 주신 윤미자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며 “종이접기 작품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도움을 주어 더욱 뜻 깊다. 앞으로도 좋은 문화교육을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칼럼니스트 신영, 출신원 성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시인 신영 씨가 지난 7일 일요일 드래킷 소재 포 오크스 골프장에서 출신원에 성공했다.

북부보스톤 일요골프회 회원들과 라운딩을 하던 신영 씨는 114야드 9번 홀에서 5번 하이브리드로 티업을 했고 단번에 볼이 홀 속으로 들어갔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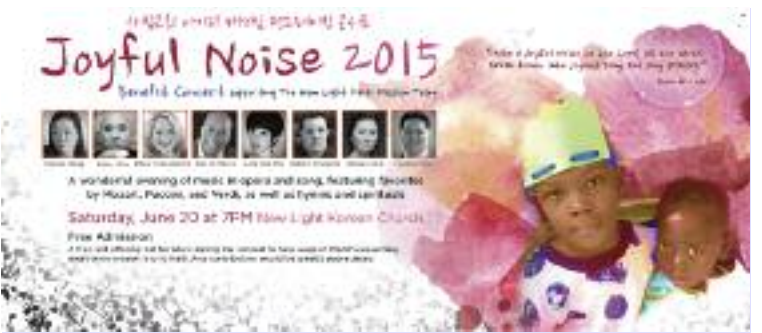
함께 골프를 치던 오순희 씨는 “(볼이) 깃대를 향해 잘 날아갔는데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해

서 홀 속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에 볼이 있었다” 고 전했다.

북부보스톤 일요골프회의 김하동 씨는 “평소 산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골프실력을 꾸준히 늘리려는 (신영 씨의) 노력이 출신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었” 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정일 씨가 출신원 트로피를 직접 만들어 주겠다고 전해 시상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아이티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 보스톤 지역 오페라 가수들이 무료 콘서트를 개최한다

새빛교회 자선 오페라 콘서트 개최

아이티 선교기금마련 콘서트 보스톤 오페라 가수 초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아이티 선교 기금마련을 위한 무료 오페라 콘서트가 오는 20일 토요일 월템에 위치한 새빛교회(담임목사 김대업)에서 열린다.

‘Joyful Noise 2015’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콘서트는 1부의 오페라 아리아와 2부의 흑인영가 갈라 콘서트로 구성된다.

초청 가수로는 폴리 크루케데이커, 강은희, 민정은 소프라노와 테너 가수 줄리어스 안과 로버트 치난테, 그리고 바리톤의 론 윌리엄스가 있다. 이외에도 김소연, 백유진 씨가 각각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콘서트 관계자는 “뉴욕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단을 비롯해 미국 전역과 유럽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 가수들이 전원 무보수로 자원해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뜻 깊은 콘서트” 라며 “(이날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친숙하고도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의 입장료는 무료로 공연 중 자유기부(Free-Will Of-

fering)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 기부금의 전액은 올 여름에 기획된 새빛교회 아이티 미션에 사용될 예정이다.

새빛교회는 2010년부터 매년 여름 아이티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있으며, 올해 여섯 번째 선교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새빛교회 아이티 미션은 아이티에 지역교회를 세우고 지원하는 것으로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돕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에 관해 교회 관계자는 “(선교활동을 통해 아이티가) 외부의 원조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성도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내부로부터의’ 자체적인 자립과 성장을 이루는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콘서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새 빛 교 회 홈페이지(newlightkc.org)에서 찾을 수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6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새 빛 교회 (730 Main Street Waltham, MA 02451)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과기협, 제약인협회 총회 및 공동 आयु회

협회 회원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회장 조진행)와 재미한인제약인협회 보스톤(회장 김승빈) 지부는 오는 27일 토요일 뉴햄프셔 흑셋에 위치한 KAYP 청소년 캠프장에서 연례 총회 및 आयु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과학기술자협회 총회에서는 2014-2015 회기에 있었던 행사 보고 및 재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또한 차기 회장 당선자 및 부회장을 인준하는 절차도 가질 예정이다.

조진행 재미과기협 회장은 “두 단체의 연합을 통해 더 많은 과학자들의 교류를 갖고 한인 커뮤니티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 며 “회원들뿐만 아



오는 27일 뉴잉글랜드 과학기술자협회와 제약인협회의 총회 및 공동 आयु회가 뉴햄프셔 흑셋에 위치한 KAYP 청소년 캠프장에서 열린다

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회장은 “과학기술자협회 또는 제약인협회의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뉴잉글랜드 지역 다른 과학기술자들과의 교류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 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무료이며 협회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21일 일요일까지 과학기술자협회 홈페이지 (kseane.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12시-3시(BBQ 점심 제공)

장소: 뉴햄프셔 KAYP 청소년 캠프장 (10 Brace Ave, Hooksett, NH 03105)

bostonkorean@hotmail.com

고려대 교우회 정기모임 공지

27일 이동익 교우자택서 모임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이태호)가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이동익 교우(건축, 73) 자택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교우회는 이번 모임을 통해 새로운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고 기존 교우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년간의 교우회 활동을 보고하고 2015-2016년도 새 임원진을 소개하게 된다.

이태호 회장은 “따뜻한 계절을 맞아 뉴잉글랜드 지역 고대 교우들을 2015년 정기 모임에 초대한다”며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길 바라며 교우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이나 교통편이 필



고려대 교우회가 오는 27일 토요일 이동익 교우 자택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6월 교우회에서 찍은 단체사진

요한 분은 교우회 임원에게 꼭 연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주소 및 교통 문의는 이태호 회장 (tleo0813@hotmail.com 또는 617-780-2999), 김재철 교우 (jaeck79@gmail.com 또는 617-455-7649)

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이동익 교우 자택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 동창회 총회가 지난 6일 액트 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는 장학생 시상식이 함께 열려 김도연, 이승미, 김수완 학생이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겸한 총회 가져

이의인 신임회장 선출
NEC 김도연, 브라운 이승미,
버클리 김수완 장학생 선정

업 후 버클리 음대 진학을 앞둔 김수완 학생이 선정되었다. 이날 장학생들에게는 각각 \$1,000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편, 2년간 연임해온 장수인 회장이 이임하고 이의인 동문이 신임회장으로 선출 인준되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회장 이의인)가 지난 6일 토요일 액트 클럽하우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겸한 정기총회를 가졌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 53학년부터 90년대 학번까지 40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기 사업 및 재무 보고, 회칙 수정, 차기 회장 인준이 이루어졌으며 뉴잉글랜드 한인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한 2015년도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들의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올해의 장학생으로는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 재학 중인 김도연 학생과 브라운 대학교의 이승미 학생, 데드햄 고등학교 졸

특히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윤상래, 윤희경, 김병국 등 세 명의 전임회장과 도삼주, 이재형 임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담긴 감사장이 수여되기도 했다.

총회의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는 주최측이 마련한 푸짐한 식사가 이어졌으며 새롭게 참석한 동문들의 소개를 갖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동문들은 이어진 역사 퀴즈, 다트 게임 등의 다양한 게임을 즐겼으며 상품 증정식을 통해 화기애애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대 동창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 사항은 동창회 홈페이지 (sites.google.com/site/snuane)를 참조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8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지난 8일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이 '팝 올스톤' 리셉션에 참석해 축하말을 전하고 있다. 무료 실내 스케이트보드장은 올 여름부터 약 1년간 운영될 전망이다

올스톤 무료 실내 스케이트보드장 들어선다

1년 프로젝트 '팝 올스톤'
"신나고 역동적인 커뮤니티 기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올 여름 올스톤에 무료 실내 스케이트보드장이 들어선다. 기존에 바이크 센터가 자리하고 있던 3층짜리 건물에 신나는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팝 올스톤(POP Allston)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올스톤 빌리지 메인 스트리트(Allston Village Main Street)의 알라나 올슨 디렉터는 "이번 여름부터 약 1년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아직 개장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슨 디렉터에 의하면 1만 스퀘어 피트에 달하는 2층과 3층 공간이 실내 스케이트장으로 변신, 각 층마다 다양한 난이도와 컨셉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1층에는 빈티지 소품 마켓과 자전거 워크샵이 들어서며 올스톤 주민들의 의견의 적극 반영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 실시된다. 현재 건물 내부는 전격 리모델링을 위해 비워진 상태다.

한편, 팝 올스톤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리셉션이 지난 8일 월요일 마련되었다. 이날 리셉션에는 마틴 월시 시장과 스폰서들을 비롯한 올스톤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서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월시 시장은 "팝 올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신나고 역동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보스톤 시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약속했다.

이날 리셉션의 한 켠에는 1층 다목적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이벤트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보드가 마련되었으며 올스톤 주민들은 미술 갤러리, 음악회, 커피샵, 벼룩시장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팝 올스톤은 올스톤 빌리지 메인 스트리트와 커먼웰 바이시클(Commonwheels Bicycle Co-Op), 오차드스케이트샵(Orchard Skateshop), 비반트 빈티지(Vivant Vintage), 보스톤 시, 이던 프로퍼티가 후원한다.

무료 실내 스케이트보드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팝 올스톤 홈페이지(popallston.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개장 일정 또한 웹사이트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인근 청년들 내집마련 별다기

보스톤은 미국에서 10번째로 젊은이가 집사기 어려운 도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평균 연봉을 받는 젊은이들이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보스톤에서 일하는 18-34세의 청년들이 보스톤 지역에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연간 \$4,394를 더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스톤은 미국에서 10번째로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도시에 선정됐다.

블룸버그는 보스톤 인근의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을 \$379,975로 산정했으며 젊은 청년들의 평균 연봉은 \$46,348로 잡았다. 모기지 의 경우 20%를 다운페이 하고 각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연봉은 총 연봉의 3분의 1로 모기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

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보스톤 지역의 집 구입을 위해 젊은이들은 적어도 \$4,394를 더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블룸버그는 "어포터빌리티 갭" 라고 명명했다.

이 정도의 어포터빌리티 갭은 양호한 편이다. 서부의 일부 도시는 아예 절망적이다. 산호세는 무려 \$80,162를 더 벌어야 하며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60,975를 더 벌어야 한다. LA도 \$45,751, 샌디에이고도 \$36,084로 내집마련의 꿈은 요원하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어포터빌리티 갭과는 별도로 젊은이들은 20%에 달하는 다운페이먼트 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35세 이하 가족의 경우 2013년 평균 \$10,400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는 보스톤 지역의 집을 구입하기 위한 20%에 달하는 다운 금액인 \$76,000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봄이 왔는데도 커뮤터 레일은 지연 운행

5월 열차지연 비율 14%로 높은 수준
좌석도 부족, 여름에는 상황 더 악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겨울 커뮤터 레일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기차가 운행이 중단되거나 늦게 도착하여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에 MBTA 커뮤터 레일을 운행하던 케울리스는 폭설과 궂은 날씨 때문에 정상운행이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커뮤터 레일은 지연 운행이 계속되고 있다. 커뮤터 레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차에 앉을 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열차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많은 눈이 내렸던 올해 2월에 운행 중인 커뮤터 레일의 67%가 정시에 운행되지 않고 늦게 도착했다. 그러나 5월이 되어서도 14% 정도의 기차가 늦게 도착하고 있다. 5월에 14%의 기차가 늦게 도착한 수치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케울리스는 커뮤터 레일 이용자들에게 여름이 되면 열차가 더 늦게 다닐 수 있다는 공지 사항을 발표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선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30마일



눈이 그쳤는데도 커뮤터 레일이 정시에 운행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다

이하로 다녀야 열차가 탈선하지 않는다.

열차에 충분한 좌석이 없는 것도 문제다. 케울리스는 평상시에 열차가 정상 운행될 때 최소한 356개의 좌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MBTA에 의하면 6월 1일에 케울리스가 운행한 열차의 좌석은 339개에 불과하다.

사우스보로에 거주하며 프래밍햄/우스터 라인 커뮤터 레일을 이용하는 존 카틀리는 "마치 내가 기차의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년간 열차를 탈 때 한 번도 앉았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케울리스는 작년 7월부터 MBTA와 계약을 맺고 커뮤터 레일을 운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커뮤터 레일을 운행해 왔던 매사추세츠 베이 커뮤터 레일로드를 경쟁 입찰에서 누르고 268만 달러에 MBTA와 8년 계약을 맺었

다.

케울리스는 커뮤터 레일 운영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관차 40대를 도입했다. 그러나 케울리스가 가져온 기관차는 대부분이 수리를 해야 정상 작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기존의 MBTA 직원들은 케울리스가 도입한 기관차의 부품이 낡아서 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케울리스가 도입한 40대의 기관차 중에서 현재 운행 중인 기관차는 23대에 불과하다.

커뮤터 레일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케울리스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열차가 운행이 취소되거나 늦게 도착하면 MBTA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한 달에 최대 434,425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케울리스는 작년 10월부터 매달 최대 벌금을 물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스티븐 크로스비 매사추세츠 카지노 위원장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다

MA 카지노 위원장 윤리 위원회 조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카지노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 윤리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 매사추세츠 카지노 위원회는 카지노 면허를 허가하고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윤리 위원회의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티븐 크로스비 카지노 위원장은 자신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인터뷰에서 크로스비 위원장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카지노는 현재 에버릿에서 개발 중인 16억 달러 규모의 윈 리조트 카지노다. 윈 리조트는 모하건 선과 경쟁하여 보스톤에 가장 인접한 도시에

서 카지노 개발권을 따냈다.

크로스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윈 리조트 카지노가 개발 중인 부지가 크로스비 위원장의 오랜 친구인 폴 로네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크로스비 위원장과 로네스는 1970년대 군복무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 사이다.

글로브에 따르면 윤리 위원회는 크로스비 위원장이 윈 리조트 카지노 허가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서가 접수되어 크로스비 위원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크로스비 위원장은 "나는 지난 3년 동안 윤리 위원회에서 제공한 모든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조만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紅蔘

6년근

KOREAN RED GINSENG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 기력회복
- ✓ 항암효과
- ✓ 감기예방
- ✓ 혈액순환 개선
- ✓ 당뇨 합병증 예방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 기억력 개선

동인비진 크림
DONGINBI Red Ginseng Power Repair Cream / B014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SUSHI WOODLE GRILL

617.547.0212

Mixitrestaurant.com

FREE SPICY TUNA ROLL with purchase of any sushi \$30 or more

WE DELIVER lunch and dinner

Mix-it Sushi Noodle Grill | 1678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8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비치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관

3만부를 매년 2월 말부터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도움을 아낀게 느껴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후원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배포 업무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아 고객들을 위한 것으로 풀려줄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선택이 대한 배움은 꼭두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경찰, 죽음 위협에서만 총기 사용

보스톤, 서머빌, 케임브리지 경찰 총기사용수칙공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과 찰스강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케임브리지 경찰이 공개한 총기 사용수칙(policy on use of force)에 따르면 경찰은 죽음에 준하는 위협이 발생했을 때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칙은 보스톤, 서머빌 경찰이 공개한 수칙과 동일하다.

케임브리지 경찰은 9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총기 사용수칙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케임브리지 경찰부는 총기 등 무기 사용 수칙 공개는 경찰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왔었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경찰은 시 매니저,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협의 후 총기 사용 수칙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총기를 발사하거나 용의자를 제압했을 때 사건을 재검토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 5일 텍사스에서는 경찰이 수영장 파티를 즐기던 흑인 청소년들에게 총을 빼들고 위협을 가하는 등 과도한 총기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제리미 우니 케임브리지 경찰 대변인은 지난주 케임브리지 온라인 뉴스인 맥락(MuckRock)이 자료 공개를 요청했을 때 사용수칙 공개는 수사를 방해할 것이며 더욱이 "위험한 범죄 용의자에 대처할 때 이 수칙과 절차를 따르는 경찰을 위협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 며 거부했다. 보스톤의 메이저 언론인 보스톤글로브는 이 같은 케



텍사스 주에서 백인 경찰관 데이비드 케이스볼트가 10대 흑인 소녀를 과잉진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브리지 경찰의 거부를 보도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인근 보스톤 시와 서머빌 시의 경찰은 이와 같은 공개 요구에 다른 많은 미국의 경찰들처럼 즉각 사용수칙을 공개했다.

케임브리지 시 경찰은 9월 수칙을 공개하며 맥락(MuckRock)의 공개 요구가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총기사용수칙을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오바마 대통령 특무팀의 지난달 권유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스톤, 서머빌 경찰과 마찬가지로 케임브리지 경찰은 필요한 최소한의 폭력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2011년에 개정된 이 수칙에 따르면 경찰은 총기사용을 "죽음의 위협 또는 심각한 신체 손상의 위협" 상황 또는 특정 상황에서 흉악범의 체포를 위해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수칙에 따르면 경찰은 방아쇠를 당

기기 전 가능하면 구두로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기를 발사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은 반드시 용의자를 향해 총을 쏘았을 경우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총기를 사용한 이후 경찰관은 반드시 용의자의 상태를 점검해 의료진이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경찰관은 목조르기를 해서는 안되며 블랙잭(검은 곤봉), 쌍절곤, 브레이스너클 등 규정되지 않는 무기의 휴대를 금하고 있다.

미 시민연맹은 그동안 수칙 공개를 거부한 케임브리지 경찰을 비난해 왔다.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를 두고 "이 같은 투명성이야말로 대중들과 경찰관 사이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 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칠드런스 호스피털 미국 1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칠드런스 호스피털이 미국내 어린이 전문 병원 중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됐다.

유에스 뉴스가 9월 선정한 2015-16년도 미국내 최고의 어린이 병원 순위에서 보스톤 칠드런스 호스피털은 필라델피아 칠드런스 호스피털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보스톤 칠드런스 호스피털은 10개의 전문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분야는 심장병, 당뇨, 소화기, 신장, 신경정신, 비뇨기과 등이다. 이외에 신생아 케어, 정형외과에서는 3위안에 선정됐다.

보스톤 소재 대나파버 어린이 암, 혈액질환 센터는 어린이 암치료 분야의 1위를 차지했다. 보스톤 칠드런스 호스피털은 지난 2012-2013, 2014-2015 년도에도 1위를 차지했었다.

US 뉴스는 미국내 184개 소아병원의 1만여명의 전문의들에게 가장 아픈 환자를 어디에 보내겠는지 질문해 순위를 선정했다.

한편 US 뉴스는 미국내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메이요 클리닉을 선정했으며 보스톤 소재 MGH가 2위,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각각 3,4위로 선정됐다.

hsb@bostonkorea.com

6월 한달 토빈브리지 톨요금 연체료 사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토빈브리지의 요금 징수제도가 페이바이플레이트 즉 톨 부스 없이 다리를 통과 후 메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간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은 모든 토빈브리지 톨요금을 연체료 부담없이 요금 자체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바이플레이트라는 이 프로그램은 요금 통지서를 보내고 운전자들이 요금을 30일상 납부하지 않았

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했다. 60일이 지나면 또 1불, 90일이 지나면 또 1불 등 매월 1불씩 최대 6불까지 연체료가 부과된다. 6불이 되는 경우 차량 등록국에 통보해 등록증 갱신이 불가능해진다. 갱신 당시에는 최초 통행 요금과 연체료 그리고 벌금 \$20을 부담해야 갱신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사면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 7월 21일 이후의 벌금에 한정된다. 또한 사면 프로그램은 갱신 벌금 \$20도 사면한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화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흑인청소년에 총 겨눈 경찰, 과잉대응 논란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텍사스 주 맥키니에서 백인 경찰의 흑인 청소년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미국 CBS 등이 8일 보도했다.

지난 5일 소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관인 데이비드 케이스볼트가 흑인 10대들에게 총을 겨누고 한 소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큰 파문이 빚어졌다.

맥키니의 한 주민은 이날 야외 수영장을 빌려 풀사이드 파티를 열었다. 그러나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이웃 동네 주민들과 청소년 등 130여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소란이 일어났다.

일부는 수영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등 소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한두차례 벌어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목격자가 촬영한 약 7분짜리 영상에는 케이스볼트 경관이 파티를 하던 흑인 청소년들에게 욕을 하고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이어 수영복 차림인 한 소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 바닥으로 거세게 밀친다.



텍사스 주 맥키니의 수영장에서 백인 경찰관 데이비드 에릭 케이스볼트(41)가 비키니를 입은 흑인 소녀 다제리아 벡턴(15)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장면 (출처=CBS뉴스)

케이스볼트 경관이 소녀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치자 이 소녀는 "엄마를 불러달라"고 요구한다.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약 800명의 맥키니 주민들은 8일 밤 가두행진을 벌였다.

영상속 위협을 받은 다제리아 벡턴(15)은 케이스볼트 경관의 "해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시위대는 "내 피부색은 죄가 아니

다", "우리 아이들을 짓밟지 말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한 학교에서 사건현장인 수영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인권단체들은 사건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수사와 함께 케이스볼트 경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케이스볼트 경관은 사건 직후 휴직 처분을 받았다.

Ichung@news1.kr

미 최악 조류독감 미시간 주로 확산... 벌써 21개 주

(시카고 로이터=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AI)이 미시간 주까지 확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미시간주 천연자원부는 디트로이트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스틸링하이츠의 어린 거위 3마리에서 고병원성 H5N2인플루엔자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키이스 크리그 국장은 "당국은 현재 가금류 질병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46만 마리의 닭과 칠면조가 조류독감에 감염돼 죽거나 살처분됐다. 그동안 조류독감이 발견된 지역은 주요 계란 산지인 아이오와 주와 최대 칠면조 산지인 미네소타 등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014년 이래로 미국에서 조류독감이 발견된 것은 미시간주가 21번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성 야생조류에 의한 감염은 6번째

라고 덧붙였다.

제이미 클로버 아담스 미시간 농업 및 농촌개발 국장은 "인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관련 인플루엔자가 발견된 만큼 이번 독감이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확산된 조류독감은 캐나다에서도 발병했으며 H5N2형은 브리티시컬럼비아와 온타리오에서, H5N1형은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확인됐다.

ejjung@news1.kr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 로고

미 FDA 자문위, 새 고지혈증약 승인 권고... "획기적 치료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최근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입증된 새 고지혈증 치료제 '프랄루엔트'(Praluent)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단이 9일 승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약은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와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신약으로,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스타틴보다 5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난 3월 발표된 바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간의 기능을 방해하는 단백질 억제제(PCSK9)를 억제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PCSK9 억제제'라고도 불린다.

자문위원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FDA가 실제 승인 결정을 내리면 심혈관 질병 치료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이 약을 개발한 제약사들도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NYT에 따르면 스탠퍼드대학 심장병 전문의인 조슈아 놀스 박사는

유전학 연구에서 개발 아이디어를 얻은 이 약에 대해 "현대 유전 혁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FDA에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이 약이 광범위하게 쓰이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FDA 자문위원 상당수가 임상시험 결과에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이 유전적 이유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고위험군 환자에 한해 약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또 높은 비용 역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만들어진 단일 클론 항체이기 때문에 제조 가격이 비싸다. WSJ는 주사제 방식의 이 약 값이 월 1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후 늦게 FDA 자문위의 승인 권고가 나오자마자 사노피의 주가가 폐장 후 거래에서 3% 급등한 50.92달러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외신들은 덧붙였다.

yy@yna.co.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휴일없는 미용실
Bliss Image

봄날의 싱그러움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중중중은 치과
중중중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미 교통안전위, 모든 차량에 충돌예방 시스템 장착 권고

(워싱턴 로이터=뉴스1) 이준규 기자 =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8일 자동차업계와 교통당국에 향후 생산되는 각종 차량에 충돌예방시스템을 장착하도록 권고했다.

NTSB는 이날 6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승용차, 트럭, 버스 제조사 등 자동차기업에게 최소 전방의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도록 하는 수준의 전방 충돌예방시스템(CAS)을 장착하라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CAS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시스템의 장착 의무화를 여러 차례 권유해온 NTSB는 CAS가 매년 17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50만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후미추돌사고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장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CAS는 차량 전면에 레이더, 레이저, 카메라 등의 장치를 통해 전방의 충돌 위험성을 감지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거나 강제로 차량을 정지시키는 기능이다.

NTSB는 "현재 상용화된 CAS 기술만으로도 승용차와 상용차의 치명적인 후미추돌 사고를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기술을 모든 종류의 차량에 탑재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표준기술을 마련해야 하지만 연방 차량 규제당국은 이 같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리고 불충분한 노



현대자동차 올뉴투싼에 장착된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앞 차량의 급제동이나 보행자의 이동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량을 긴급 제동시키는 기능이다

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된 684종의 승용차 중 완전하게 CAS를 탑재한 모델은 4종에 불과하다. 일부 모델들은 CAS를 옵션에 집어넣어 추가금을 지불하면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토퍼 하트 NTSB 위원장은 "누구도 안전벨트를 사는데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CAS와 같이) 충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술에도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며 CAS의 의무 장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NTSB는 자신들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형 모델이 출시 때 실시하는 안

전평가에 CAS 테스트 항목 신설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NTSB는 자동차업계에 NHTSA가 CAS 평가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준수해 양산 제품에 CAS를 장착해줄 것을 당부했다.

NHTSA는 이번 NTSB의 발표를 환영하는 한편 현재 자동 긴급 제동 등 안전장치의 의무장착을 권장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NHTSA는 "NTSB는 물론 산업계, 다른 관계당국과도 신형 안전 기술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findlove@news1.kr



뉴욕 경찰당국이 늘어나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추가로 배치했다

뉴욕시, 범죄율 재증가에 경찰 330명 추가 배치 '특단조치'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뉴욕 경찰당국이 늘어나는 살인·총기사건을 단속하기 위해 도심 일대에 경찰관들을 추가로 배치했다.

AFP통신은 10일 브루클린, 브롱스, 퀸즈, 스탠포아일랜드 등 우범 지역 뉴욕시내 10곳에 약 330명의 경관들이 새로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빌 브래튼 뉴욕주 경찰국장은 "뉴욕시는 미국 내 가장 안전한 대도시 가운데 하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지역이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총기사건율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래튼 국장은 "불이 꺼지기만 한다면 (추가 배치된) 경관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겠지만 현재로서는 끝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욕시의 강력사건 범죄율은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이 재직하던 당시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은 451건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13건이 더 많은 수치다.

살인 사건 역시 올해(143건) 이미 지난해(121건)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840만여명에 이르는 대도시 뉴욕에 소속된 경찰은 현재 총 3만4500명이다.

lchung@news1.kr

빌 클린턴 "아내 대통령 당선되면 유료 강연 그만 두겠다"

(덴버 로이터=뉴스1) 정이나 기자 =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료 강연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클린턴 재단 행사에 참석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내가 백악관에 입성해도 유료 강연을 계속하겠다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대통령이 되면 매일 이슈를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되고난 후에도 유료 강연을 계속하게 되면 너무 큰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다는 설명이다.

클린턴 부부는 약 100차례의 유료 강연을 통해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2500만달러(약 278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특히 대선출마 선언 이후 빈부 해소와 중산

층 살리기를 강조해온 터라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다만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강연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재직시 재단 기부자들에게만 우호적으로 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외국 정부나 기업, 다른 재단들이 대가성 기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힐러리는 당시 매우 바빴고 기부자 명단을 살펴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에는 클린턴 재단이 중동의 인권탄압 국가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클린턴 전 장관의 대선 후보 자 격론 시비가 한차례 일었다.

lchung@news1.kr

LA 최저임금 2020년까지 현 9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가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 6600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10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25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5명 이하의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앞서 이미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임금 인상안이 합의된 만큼 관련 법안을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래로 7.5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LA의 경우 9달러 수준이다.

러스티 히스 LA 노동자협회장은 "오늘은 활기찬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모든 LA 시민들에게 좋은 날"이라고 환영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투표에 앞서 시위대가 최저임금 승인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그는 "수개월의 연구 및 토론을 거친 후 진행된 시의회의 투표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위한 한걸음을 뗐다"며 "여전히 관련 작업이 남아있으나 LA 시민들은 임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고용주 등은 부담이 가중돼 강제로 인원 감축에 나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jjung@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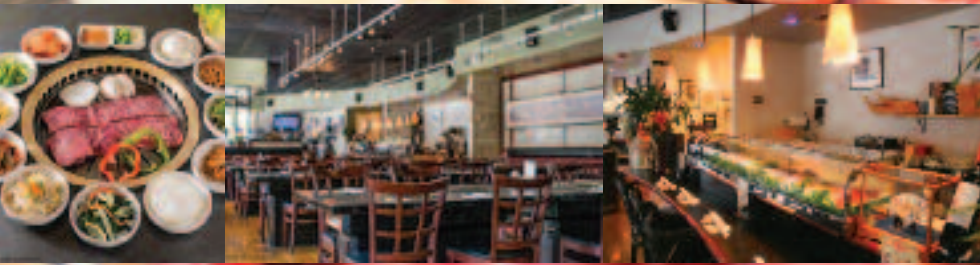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2 – 7/31
 Courses, SAT, Problem Solving
 가을학기 시작 9/8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우리가 아닌 국가가 뚫린 것"... 책임회피 논란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삼성서울병원 측은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의 진원지로 삼성서울병원이 지목되는 데 대해 "우리 병원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 등이라며 제기된 책임론을 부인했다.

정두련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은 이날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이 부실해 사태가 커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렇게 밝혔다.

박해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병원이 문제 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삼성병원이 뚫려서 수퍼전파자가 나오는 형국"이라며 "삼성병원에서 (전파자들) 애초에 막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과장은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삼성병원은 뚫린 게 아니라는 뜻이냐'고 묻자 정 과장은 "네"라고 답했다.

정 과장은 메르스를 50명에게 감염시킨 14번 환자에 대한 삼성병원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도 병원의 과오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과장은 "삼성병원이 1번환자를 진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정두련 과장이 메르스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동에 다녀왔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14번 환자는 중동에서 온 환자도 아니었고, 우리 원에 왔을 때는 다른 병원을 거쳐온 폐렴환자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집단 발병하고 있다는 정보가 없다면 병원에서는 해당 환자에 대해 (단서가 없이 메르스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때문에 14번 환자로부터 다수가 노출된 상황이 발생했고, 그 이후 모든 힘을 다해 노출자를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14번 환자가 '메르스 진양지'인 평택성모병원을 거쳐왔지 않느냐는 지적

에 정 과장은 "평택성모를 거쳐온 것은 알고 있었지만 평택성모에서 집단 발병이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는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성모를 거쳐온 것을 알았지만 중요하게 생각 안했다. 폐렴 환자가 거쳐온 하나의 병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며 "(집단발병 여부는) 정부가 통보해줘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로부터 노출된 환자가 685명, 직원은 218명이고 이중 밀접접촉자 115명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riwhat@news1.kr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메르스, 신종플루와 비교하면 작은 상황"

"컨트롤타워 잘 작동되고 있다" "심각단계 격상하면 전국 획일 조치해야 하는 부작용"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이 신종플루 때와 비교해 보면 조그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컨트롤타워'를 지적하는 인재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이 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민안전처는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며 "이 두 기구를 국무총리 대행께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현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체제라고 본다"며 "(국가전염병·재난단체를) 심각단계로 올려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꾸려도 복지부가 하게 되는 역할은 똑같다"고

했다. 이 차관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아직 메르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았다"며 "전반적 상황이 신종플루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조그만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전염병 단계를 상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심각단계로 격상하면 전국에 획일적 조치를 해야 하고, 그러면 전국 행사를 취소하고 학교들을 모두 휴교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지자체가 (발생) 수준별로 심각단계에 맞게 조치를 하고, 전반적으로는 주의 단계로 놓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환자가 더 늘어나고 전국 단위로 늘어나면 단계를 올리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게 맞느냐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현 상황에서 작동이 잘 되고 있다. 임무를 분담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riwhat@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UNE 12TH - JUNE 18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and Instagram!

GET FIT. GET HEALTHY. GET TO HMART.

ENJOY DELICIOUS ALL-NATURAL CHICKEN
 ALONG WITH OTHER FRESH MEATS, SEAFOOD
 & FRUITS ON SALE AT HMART.

여름더위 잡는 최고의 보양재료가
 H마트에 모두 있습니다!



summer savings
 Want E-Coupons in your inbox? Confirm your email address at any local HMART!
 각종 할인이 담긴 H마트 여름맞이 쿠폰북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CH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蔘鷄湯
 한국에서 만든 하림 삼계탕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Harim
 It's Korea's version of chicken soup, but now it's easier than ever to cook. All the ingredients are pre-packed and ready to eat. Just simmer and serve.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립 즉석 삼계탕
 23.21oz.
\$9.99

CHG Cooked Seasoned Loach Soup
 춘향골 남원 추어탕
 15.8oz.
\$6.99

Smoked Duck
 훈제 오리
 1lb.
\$14.99

USDA ORGANIC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버섯
 8oz./pkg.
\$3.99

FILLING AND GREAT FOR YOUR DIET. Squid 냉동 오징어
 1lb.
\$1.99

HELLO HOME Convection Oven
 헬로홈 컨벡션 오븐
 KYR-616A/ea.
\$49.99

Hami Melon
 하미 멜론
 1lb.
\$0.99

Ataulfo Mango
 아탈포 망고 박스
 box
\$10.99

Fuji Apple
 후지 사과
 1lb.
\$0.99

Korean Melon
 참외 박스
 box
\$15.99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뼈없는 등심 스테이크
 1lb.
\$9.99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생 삼겹살
 1lb.
\$6.99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1lb.
\$6.99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고기
 1lb.
\$5.99

Dabs 참가자미
 1lb.
\$1.99

Mackerel Pike 냉동 공치
 66-68's/lb.
\$1.99

TONGTONGBAY Pollock Fillet
 통통배 동태 전갈
 2 lbs./pkg.
\$3.99

HAIOREUM Premium Oyster
 해오름 청정생굴
 8oz./pkg.
\$3.49

NO.1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Kyong Gi Rice
 경기미
 15 lbs.
\$9.99

KOKUHO Med.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9.99

BADAAECHAN SUHYUP Premium Roasted Seaweed
 수협 전장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9.99

MARUHON 100% Pure Sesame Oil
 마루혼 참기름
 56fl.oz.
\$9.99

BINGGRAE Melona Ice Bar
 빙그레 메로나
 All Flavors/ 2.7fl.oz. x 8ea./box
\$3.99

SAMYANG Spicy Fried Chicken Noodle
 삼양 불닭볶음면
 4.9oz. x 5ea./pkg.
\$4.99

HAIOREUM Aloe Vera Juice
 해오름 알로에 베라 주스
 All Flavors/50.7fl.oz.
\$1.99

NABISCO Oreo Matcha Soft Cookies
 오레오 마차 소프트 쿠키
 5oz.
\$3.99

LONG LASTING VALUE 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4.99

KINGSFORD Match Light Charcoal
 킹스포드 매치라이트 처콜
 11.6 lbs.
\$8.99

HELLO HOME Egg Pan
 헬로홈 계란 후라이팬
 13cm x 18cm/ea.
\$4.49

ZOJIRUSHI Micom Elec. Rice Cooker
 조지루시 마이콤 전기 밥솥
 NL-AAC18CA/ 10cups - ea.
\$169.99

청, '컨트롤타워' 논란에 즉답 없이 "선제적 방지에 총력"

박 대통령, 청에 "1일 25시간 비상체제 각오해 달라"
비노 김한길 · 안철수 불참

치열한 토론도 부족
박 대통령 역할과 관련 "실질적으로 국정최고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는 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에 대한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일부터 긴급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전면 가동하고 있고,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매일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책기구와 실시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추가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을 집중 점검해 메르스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대응의 긴급성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고용복지수석이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면서 "최경환 총리 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보건복지·국방·행정자치·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핫라인을 가동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청와대 메르스 방지긴급 대책반, 이날 구성된 전문가 즉각 대응팀까지 다양한 대응 기구가 구성되면서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데 따른 설명이다.

메르스 확산방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선 "매일 새벽 비서실장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면서 "어제(7일)만 해도 비서실장에게 통화하며 메르스 상황 종료 때까지 1일 24시간 아닌 25시간 비상체제 유지한다는 각오로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택 정책조정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어제 아침에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관련 부처·참모들과 거의 30건이 넘는 통화를 했다"면서 "실질적으로 국정최고 책임자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 수석은 이어 "박 대통령은 3일 민관합동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고, 5일

에는 국립의료원에 갔으며, 오늘은 범정부지원본부를 방문해 민간전문가와 회의를 가졌다. 또한 내일은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박 대통령이 내각 전부를 통솔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총리 직무대행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3개의 본부·TF가 구성돼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고 관계 장관 회의를 열기 때문에 총리를 컨트롤타워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birakoca@news1.kr

유승민 "정부, 메르스 컨트롤타워 명확히 설정해야"

"최경환 주재 범정부 일일점검회의 잘한 일... 거기에 다른 기구 일원화해야"

박 대통령 방미 연기야 주장엔 "청 알아서 판단"

"국회법" 의장 중재안, 야당 입장 기다리는 중"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제1차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가 열린 점을 언급, "최 총리대행이 매일 회의를 주재하고 상주하면서 메르스를 점검하겠다고 한 것은 잘된 일"이라며 "회의가 매일 열려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모든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 중요한 의사 결정, 현장 집행 점검, 지자체 협조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알려야 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일에도 최고위급 협의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최 총리대행 체제의 최고위협의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다른 메르스 관련 대책기구 등은 거기에 일원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 총리대행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식차에 따른 정부 내 엇박자' 질문에 "두 분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 장관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의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일정 연기 주장에 대해선 "청와대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당에서 청와대에 입장을 전달했는지를 묻자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로 인해 일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맞벌이 부부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출근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많은 지역 의원들이 지적한다"며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 기업들도 이럴 때 유급 휴가 등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논의 중인 데 대해선 "우리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기다리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답의 의장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협의 여부에 대해선 "야당 입장이 나와야 청와대와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야당 입장도 안 나왔는데 청와대와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오늘 청문회와 내일 증인·참고인 질의 등을 무사히 마쳐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 처리가 즉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rue@news1.kr

정부, 전권 가진 '즉각대응TF' 구성

김우주 대한감염학회이사장, 복지부 차관 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원대병원·정희진 고대구로병원·최준용 신촌세브란스병원·윤지현 (전)홍익병원·윤희정 (전)을지대학병원·이상오 서울아산병원·최영화 아주대병원·이재갑 한강성심병원, 김태형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13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즉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원 폐쇄명령권 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방지에 관한 전권을 부여키로 했다.

행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폐쇄 명령권을 포함한 감염관리 지도에 관한 전권과 행정지원 요청명령권을 갖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성된 TF는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장욱주 보건복지부 차관을 팀장,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부팀장으로 참가한다.

또한 팀원으로 김경미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송영구 강남세브란스·송준영 고대구로병원·엄종식 강동성심병원·오원섭 강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된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역대책 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중심으로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 여기에 전권을 쥐어 신속하게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방역의 핵심은 감염 경로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연결 고리를 완벽하게 단절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근데 이것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rakoca@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김상곤, 조국·우원식 등 혁신위원 11명 확정 발표

'내부 5명+외부 5명' 구성... 그룹별, 지역별 안배

"조 교수 혁신 물갈이론은 개인 생각...토론할 것"

(서울=뉴스1) 박태정, 서미선 기자 =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10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서울대 교수 등 10명의 당 내외 인사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내려놓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당을 위해 몸을 던질 것이다"며 "저는 그런 분을 찾았고 이제 혁신위원회와 같이 하게 됐다"고 혁신위원들을 소개했다. 당내 인사 혁신위원은 예고됐던 대로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그룹별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각각 1명씩 선발됐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직접 선발한 당내 인사가 1명 추가됐다.

혁신위원회에는 당내 인사 몫으로 현

역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인 민평련 출신의 국회의원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박우섭 당 기초단체협의회 회장, 이주환 당무혁신국 차장, 최인호 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이 선정됐다.

우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당에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최 위원장은 당세가 취약한 영남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이 차장은 활력 있는 젊은 정당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그룹별 추천 후보는 아니었지만 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소장도 당내 인사 몫 혁신위원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원래 혁신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당 내에서 4명, 당 밖에서 6명을 모시려 했다"며 "하지만 혁신위원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실력을 모두 갖춘 분을 만나게 됐다"며 이 소장을 소개했다.

외부 인사는 교수 2명, 시민단체 소속 1명, 영·호남 출신 각각 1명으로 꾸려졌다.

앞서 유력한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조국 교수와 함께 최태욱 한림대 교수, 정춘숙 한국여성정치발전소 상

임대표, 임미애 경북 FTA 대책특별위원회 위원과 호남 출신의 정재웅 민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이 혁신위원 명단에 올랐다.

최 교수는 정당 개혁과 정치개혁의 전문가라는 점이, 정 전 상임대표와 정 변호사는 약자의 편에서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돼 혁신위원으로 선정됐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 교수에 대해서는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만큼 강한 혁신의 면모를 보여주시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김 위원장은 혼자 발표했으며 혁신위원들이 함께 하지는 않았다.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100여일의 활동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회의를 갖게 되며 혁신위원들은 이에 앞서 오는 12일 개최될 첫 회의에서 모두가 처음 만나게 된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새정치연합을 혁신해 나갈 것이다"면서 "조금만 지켜봐 달라. 반드시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와 최태욱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등을 포함한 혁신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혁신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우리 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거기에 적합한 분들로 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 교수가 앞서 4선 이상 의원 용퇴, 현역 의원 40% 교체 등을 혁신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에 대해선 "조 교수 개인의 의견이다. 혁신위원들 모두 각자 개인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혁신위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 인선이 비노

(비노무현)이나 비주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계파와는 무관한 분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고 각 집단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장치 하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먼저 추진할 혁신 작업에 대한 질문에는 "그동안 6차례 혁신위에서 나온 안들을 종합 검토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면서 "그 중 어떤 이슈를 가장 먼저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ptj@news1.kr

김상곤, 혁신위 가동 앞두고 의견수렴...비노 인선반발 계속

시·도당 위원장과 오찬 회동 ... 지난 7일 박지원과도 회동

혁신위 12일 첫 회의...비노, 혁신위원 인선 비판론 이어져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박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1일 시·도당 위원장들과 오찬을 갖는 등 혁신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그러나 혁신위원 인선을 둘러싼 비노·비주류 측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혁신위의 앞날엔 험로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도당 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시·도당별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 민심은 물론 혁신위 인선 및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찬 회동엔 강창일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신경민 서울시당위원장, 박병계 대전시당위원장, 박해자 광주시당위원장, 이찬열 경기도당위원장,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당 위원장들께서 당이 가진 어려움을 풀기 위한 방안들을 내

놓으셨고, 앞으로 소통하면서 혁신을 위해 함께 애쓰자는 말을 나눴다"며 "지금 민심이 우리 당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역별로 (얘기를) 주셨고,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당원의 당, 지지하는 국민의 당이 되기 위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혁신위 첫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오후엔 회의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만간 최근 취소됐던 상임고문단과의 회동 등 그룹별로 의견수렴을 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비노 진영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3시간 가량 회동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원내대표는 "최고의 혁신은 정권교체이고, 정당의 혁신은 공천 혁신에서 시작된다. 그(공천혁신) 기준은 당선가능성"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12일 열릴 첫 회의에선 혁신위원 상견례는 물론 혁신위 일정과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일주일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측은 "혁신위 첫 회의인 만큼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각오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비공개 회의에선 향후 혁신위 일정 및 운영과 혁신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

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원 인선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됐다.

비노 인사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혁신위원이 거의 운동권, 친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로 평가된다"며 "가장 큰 선결 혁신과제가 친노를 대표하는 수장격인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통한 친노계파 해체인데, 혁신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회동석상에서 혁신위원 인선에 대한 당내 비판적 여론을 전달했다. 유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비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은 이르면 내주께 공동성명 등을 통해 혁신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전달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제가 혁신위원을 뽑을 때는 실력과 헌신,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사회 의견들을 들어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해가는 것을 보고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여,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에 거물급 몰려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깃발을 꽂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역 의원은 물론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거물급까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전 단계 격인 조직위원장 공모에 대거 몰리고 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균현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당협위원장이 비어 있는 8개 지역 조직위원장을 공모해 전날(10일) 마감된 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위원장 공모 결과 △서울 도봉구갑에는 3명 △부산 사하구를 5명 △대전 중구 8명 △경기 광명시를 3명 △과주시갑 4명 △충남 천안시갑 8명 △공주시 1명 △전북 익산시 1명 등 총 33명이 신청했다.

이 사무총장은 "조강특위는 상향식 선출 원칙을 준수해 지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조직위원장을 공정하게 선정해 추후 최고위원회의에 의결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비례대표인 이애리사 의원이 대전 중구, 최봉홍 의원이 부산 사하구를 조직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 과주시갑에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됐으나 33일 만에 자진 사퇴한 정성근 전 후보자가 조직위원장을 신청했다. 정 전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 위증 논란과 정회 중 일명 '폭탄주' 회식 논란에 휩싸였었다.

3선 출신의 정진석 전 의원은 충남 공주시 조직위원장에 단수로 지원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조강특위는 대구 수성구갑과 서울 영등포구갑 등 사고 당협에 대해서도 조직위원장 공모를 통해 당 조직 정비를 계속해갈 계획이다.

이한구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비어 있는 대구 수성구갑 조직위원장에는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이 지역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대구를 찾는 횡수가 부쩍 늘었다. 이는 대구 수성구갑 출마가 예상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의 대항마로 거물급이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영등포구갑에는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조직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girin@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서울 on Beacon Hill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Dedicated to
Your Health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여야, 황교안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불발...여 "12일 단독처리"

여 "국회법 준수해야"
야 "추가 검증해야"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여야가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황 후보자 인청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와 관련한 논의를 가졌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3일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종료 뒤 3일안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만큼 12일에는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이 끝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12일 오후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황 후보자가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도 너무 늦게 제시한 만큼 추가 검증과 황 후보자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권 의원은 회동 후 "다른 청문회 보다 자료가 순조롭게 제출됐고 검증이 안된 부분은 사면자문 사건인데 변호사의 비밀 의무 유지 때문에 청문회를 100번 더 해도 말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며 "내일 오전까지 야당에 변화를 요청하고 변함이 없으면 오후쯤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열어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여당이 단독

로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것은 국회 파행을 초래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면자문 수임 사건을 검증하지 않고 보고

서를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여야, 황 청문회 마지막날 사면자문 · 삼성파일 공방

(서울=뉴스1) 김현, 유기림, 박소영 기자 =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 · 참고인을 상대로 한 질문을 통해 황 후보자의 2012년 특별사면 자문 사건수입과 검사 재직 시절 '삼성 X파일' 수사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입했던 자문사건 19건 중 2012년 1월 4일 말은 특사 자문건에 대한 의혹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사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며 "사회적으로 고위공직출신 변호사가 수입료까지 받으며 사면을 자문했을 때 (사면) 절차만 자문했겠느냐. 또 1월에 수입해 놓고 실제 자문은 7-8월에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수입했던 19건의 자문사건, 이른바 '19금' 자료를 비공개한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수입일, 처리결과 등 4가지 항목만 보면 의뢰인의 신상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자문사건 19건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비밀유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결국 비공개한 이유는) 사건명에 '사면'이 들어가서 안 주려고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황 후보자에게 사면자문을 의뢰한 인사가 천신일 세종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의 사면 사건) 수입 일자 2012년 1월4일인데, 1월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격으로 천씨가 상고를 포기한다"며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 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한다. 기가 막힌 얘기다. 이것은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황 후보자의 수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 역시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향해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사면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1년에 수입사건이 수천 건인데, 대표가 (개별) 변호사의 수입 사건을 다 알 수가 없다"고 했다가 오후 들어 동일한 질문이 이어지자 "휴정하는 사이 사무실에 확인해봤는데, (사면 의뢰인이) 천 회장은 아니라고 한다.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사면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에 속한다. 변호사가 공직에 취임할지 모르니 강간폭력 등 내용이 지저분하고 비난 받을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수입을) 거절하는 게 올바른 태도냐"며 "사면 업무는 정권에 따라 7-8회 정도 실시한다. 모든 변호사가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긴 하지만, 자문해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종훈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천 회장을 거론한 데 대해 "자연인의 이름을 거명해 깜짝 놀랐다. 지난 이틀 동안 자연인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는데, 마치 후보자의 발언을 인용하듯 얘기하면서 '이 사면에 대한 케이스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전달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떡갈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이 출석

해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황 후보자의 '편사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에 대해 '총리 부적격자'라며 "수사도 전에 공소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편파적 수사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불법 도청 결과물이라 수사를 못 하고, 증거나 단서가 되지 못한 것도 매우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악마를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악마가 돼서야 되겠느냐"면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많은 불법적 행위들이 증거능력을 (있는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될 수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병역면제 판정을 내렸던 당시 군의관 손광수 씨는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국방부 신검규칙에 따라 행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부인했고, 황 후보자라도 전혀 인연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검찰 총장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출석할 수 없음을 양지해달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당초 야당은 채 전 총장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수사 외압을 했는지 추궁하려고 했었지만, 핵심 참고인인 채 전 총장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원대 증인 5명, 참고인 16명 등 21명이 신청했으나 참고인 중 7명이 불참해 모두 14명이 출석했다.

gayunlove@news1.kr



이종걸 새민연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걸 "검증 회피한 황교안, 총리 자격 없다"

"핵심자료 능력 제출로 진실 덮고 국민 눈가리기에 급급"

지 의무를 운운하며 당사자인 의뢰인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박태정, 박소영 기자 = 이종걸 새민연 원내대표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핵심자료를 능력 제출해서 검증을 회피한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며 총리 부적격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후보자는 지난 사흘동안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진실을 덮고 국민 눈을 가리기에 급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황 후보자는 자료가 없으니 증거를 대라고 하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본인이 동의한다면 그 진실의 자료들이 다 나올 수 있었는데도 다 덮고 게 임하듯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피해갔던 그 청문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인사청문회장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면 관련 자문 사실은 위법성 논란을 결코 피하기 어렵다. 청탁성 성격이 강하다. 법적 변호보다는 로비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변호사 비밀유

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는 과거 (성완중) 사면이 문제가 됐을 때 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며 "후보자 입장이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방식으로 총리 때도 행사된다면 과연 국민은 누구를 믿고, 기대고 이 나라 국정을 기대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오후 예정된 6월 임시국회 협의를 위한 여야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거론하며 "국민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 진행은 지금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 "지금은 메르스 전쟁에서 긴장의 끈을 풀 때가 아니다. 추가 감염이 나오고 강원, 충북에서 양성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확진 소식도 있다. 선불리 안심할 때가 아니다"며 "메르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ptj@news1.kr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에서 알찬 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5 여름방학 선행학습 프로젝트

3 주 완성반
1st: June 29-July 17
2nd: July 20-August 7
3rd: August 10-August 28
오전수업: 9:30AM - 12:30PM
오후수업: 2:00PM - 5:00PM

High School

- ACT Preparation
- Chemistry
- New PSAT (2015)
- Physics
- Algebra
- English Composition
- Geometry

Middle School

- English Language Arts
- Pre-Algebra
- Algebra
- Geometry

최고의 강의와 최강의 관리프로그램으로 매일 3시간의 수업 후 3시간의 과제시간을 두어 교과과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도와 학업성취도를 높입니다.
모든 수업은 8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진행되어 자리가 한정되어있으므로 오늘 상담신청하세요!

수업은 3시간이며 월-금 (주 5일) 입니다.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617-492-2722

Harvard Square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 ask@theacademy.ac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Korean) 4:30pm(Korean)
Weekday Tuesday 10:30am(Korean), Thursday 7:30pm(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2015년 9월7일까지
2015년 9월20일-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작은 삶이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 러니마 (8편 3:18)

담임목사: 우시창
연 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NewHampshir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턴 남부지역 보스턴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건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한진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보스톤 **코리아** 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규 기자직 : 풀타임 0명
취재전문 파트타임 0명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자
한국어 능통 및 영어 가능자
기자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 샐러리 베이스, 편리한 근무시간. (필요시 비자 지원 가능)
전형과정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지원서류: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자기소개서
관심 분야: 250 단어(워드 기준) 내외 기사작성 본
모집마감 : 6월 15일
면접시 지참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수습기간 : 4개월 (수습기간은 기본 연봉의 50%)
보수 : 추후협상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 기사작성본을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트리어츠 러닝백 로스터 살펴보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시즌 수퍼볼 우승을 끝으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주전 러닝백 두 명이 팀을 떠났다. 무릎 부상 전까지 빼어난 활약을 펼쳤던 스티븐 리틀리는 뉴욕 제츠로, 패스 캐칭 능력이 뛰어나 전천후로 활약했던 웨인 버린은 뉴욕 자이언츠로 팀을 옮겼다.

수퍼볼 우승 당시 패트리어츠는 NFL에서 가장 균형이 잡힌 팀으로 꼽혔다. 공격과 수비에 큰 약점이 없고, 공격에서도 패스와 러닝 공격이 조화를 이뤄 상대팀이 수비하기 까다로운 팀이었다. 패트리어츠의 러닝백은 쿼터백 탐 브래디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팀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리틀리와 버린이 떠난 공백이 커 보였지만 패트리어츠는 오프시즌 동안 이 구멍을 훌륭히 메웠다. 현재 패트리어츠의 러닝백 로스터에는 6명의 이름이 있다. 올해 9월 정규시즌이 시작할 때 이들 중 어떤 선수가 주전 러닝백 자리를 차지할지 패트리어츠 러닝백 로스터 중에서 가장 유력한 3명의 선수를 살펴보자.

LeGarrette Blount

르개렛 블런트 패트리어츠에 합류한 2013년부터 1번 러닝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지만 주전 러닝백 자리를 확실히 꿰차지 못하

고 2순위 러닝백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주전 경쟁에서 블런트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블런트는 스피드가 빠르거나 순발력이 뛰어난 러닝백이기 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러닝백이다. 상대 수비 선수와 첫 접촉 이후 러닝 야드가 NFL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힘이 좋은 선수다.

블런트는 오프시즌 동안 눈에 띄게 연습량을 늘리고 맹훈련 중이다. 이 때문에 체중이 조금 줄었다. 가벼워진 블런트가 예전 같은 파워 플레이를 보여 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Jonas Gray

조나스 그레이는 지난 시즌 콜츠와의 경기에서 인상 깊은 플레이를 펼쳤다. 한 경기에서 200야드 이상과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러닝백은 그레이를 포함하여 NFL 역사상 8명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레이는 콜츠와의 경기 이후에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정규시즌 후반기와 포스트 시즌에는 출전 기회조차 별로 없었다.

그레이가 확실하게 주전 러닝백으로 선택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빌 벨리치 감독은 여러 러닝백을 골고루 기용하는 감독으로도 유명하다. 그레이가 오프시즌에서 모두를 깜짝



르개렛 블런트는 주전 러닝백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놀라게 할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백업 러닝백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Brandon Bolden

브랜든 볼든은 주전 러닝백은 아니지만 패트리어츠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 볼든은 러닝백 포지션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스페셜 팀에서 주로 활약했다.

킵오프와 펀트를 할 때 리터너로 뛰기도 하고 상대팀을 마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스페셜 팀에서 볼든의 기여도는 에이스급이다.

볼든의 러닝 스타일은 상대 수비수의 태클을 비집고 들어가 효율적으로

야드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볼든은 러닝 능력만 놓고 본다면 주전급 러닝백은 아니지만 여러 방면으로 팀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터 경쟁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선수다.

jsi@bostonkorea.com

보스턴 한인야구리그 8라운드 경기 소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지난 6일 현충일에 열린 보스턴 한인야구리그의 제8라운드 경기에서는 올스톤 슬래머스와 브루클라인 빌리버스가 각각 오전과 오후 경기에서 승리했다.

뉴튼 캐봇 베이스볼 파크에서 열린 이날 8라운드 매치는 오전의 올스톤 슬래머스(Allston Slammers)와 캠브리지 바나나스(Cambridge Bananas), 오후의 브루클라인 빌리버스(Brookline Believers)와 뉴잉글랜드 에이스(New England Ace)의 경기로 구성되었다.

제1경기는 투수력을 앞세운 AS가 CB를 10:6으로 제압하며, 2연패 후 승수를 추가하였다.

이날 AS의 투수력과 수비력은 지난주와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선발 김민수 선수가 2이닝 무실점, 2번째 투수인 앤드류 강 선수가 5이닝 2실점 1자책으로 CB의 타선을 완벽히 압도함으로 승기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주 외, 내야의 많은 실책으로 쉽게 대량 점수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수

비력은 지난 경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수비력과 투수력에서 CB를 압도한 AS는 타선에서는 빅이닝을 만들진 못하였지만 조금씩 조금씩 차이를 벌려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다. 특히 이날 선발 투수였던 김민수 선수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홈런을 기록하여 홈런 단독 선두를 유지하였다.

CB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력에서 허점은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공격력에서 확실히 부족함 점을 드러냈다. 특히 AS와 비교해 안타수와 에러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타자들의 응집력과 집중력의 부족으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패인으로 분석된다.

(승: 앤드류 강, 패: 이충훈)

오후에 펼쳐진 2경기는 2위인 BB가 연승으로 선두자리를 굳혀가던 NEA를 16:7로 잡아내며 선두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날 BB의 투수진들은 강타자들

이 준비한 NEA를 상대로 굉장히 효율적인 투구를 펼치며 승리를 이끌었다. 대부분의 타팀들이 매경기 2자리수 이상의 실점을 허용한데 반해 BB의 투수진들이 총 7실점으로 NEA의 타선을 제압하였는데 7회를 제외한 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타선에서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던 간판타자 이승원 선수가 2홈런 포함 6타수 3안타 2득점 4타점으로 굉장한 활약을 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리드오프 앤디

황 선수 또한 6타수 4안타 2득점 4타점 4도루로 완벽한 리드오프의 모습을 보이며 승리의 선봉장이 되었다.

이날 타팀에 비해 투수력이 좋다고 평가되는 NEA의 투수진을 상대로 완벽히 압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살아난 BB의 타선이 잔여 시즌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게 만드는 경기였다.

이날 NEA의 경기력은 전 경기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 경기의 대부분의 경기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으로 승리로 이끌었으나 이날 그러한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안타에 비해 많은 득점에 성공하였으나 반대로 상대에게 안타수와 같은 실점을 허용했다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승: 데이비드 황, 세이브: 폴 유, 패: 폴 추)

다음주는 CB와 BB, 그리고 MW와 AS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06/06/15 LEAGUE STANDING

RANK	TEAM	G	W	L	T	PCT	PTS
1	New England Ace	7	5	2	0	0.714	15
2	Brookline Believers	6	4	2	0	0.667	12
3	Massachusetts Warriors	6	3	3	0	0.500	9
4	Allston Slammers	7	3	4	0	0.429	9
5	Cambridge Bananas	6	1	5	0	0.167	3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0,860
Sharon, MA
3 Beds, 2.5 Baths, 2344 sf.
Near center of town location
New roof in 2014,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450,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1666 sf.
Great Value! 좋은 학군
Lovely private 1 acre lot.
이현주 401-935-339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 Baths, 1266sf.
Great Location!!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60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 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60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s, 3498sf.
Maintained 2002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 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25,000
Canton, MA
3 beds, 2.5 baths, 1848 sf.
Charming cape in a great
Convenient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625,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349,9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50,000
Amherst, MA
한국에서 오래 장사한곳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

한국프랜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반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525
Acton, MA
2 Beds, 1bath, 820sf.
안전하고 좋은 학군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Restaurant \$547,9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20,000 Boston, MA Beer&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l 617-792-8842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3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적인 생어와 훈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이크,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적인 훈마구로 참치, 스크램블, 생선, 라마제,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업스톤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상징적이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 24 June 12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업소탐방 291

한글요양만두집, 새벽아침으로 딱!

덤플링 팰리스(Dumpling Palace)

179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617-266-8888
dumpling-palace.com

연타비 100% HD TV로 플레이/리플로 새겨 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S**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기에
내마음대로 무하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유감없이 티보를 시청하세요

6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6월 30일까지 2년 약정시
이동 기입자 6월 시청료 무료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CBS, EBS, tvN, XBS, O'live, OCN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버클리 음대 앞 만두집 덤플링 팰리스 (Dumpling Palace)는 새벽 3시까지 한다는 점만으로도 인기만점이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갓 찜낸 만두와 기름진 볶음 요리. 늦은 시각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한 훌륭한 야식이 아닐 수 없다.

“밤 12시 이후가 또 다른 러시아워” 라는 덤플링 팰리스의 캐빈 매니저는 밤 늦게 야식을 찾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굉장하다고 한다. 개업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시험기간을 맞은 인근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났다고.

바로 건너편의 버클리와 조금 떨어진 노스이스턴 뿐 아니라 MIT까지 배달하느라 늘 바쁘다는 캐빈 매니저다. 과연 두 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도 아담한 식당 내부에는 손님이 줄지 않을 기세다.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만두 메뉴는 미니 주시 번 (Mini Juicy Bun)과 로스트 덕 번 (Roasted Duck Bun)이다.

미니 주시 번은 만두 속에 고기육즙과 양념이 그대로 베어 있다. 말 그대로 ‘주시’ 하기 때문에 먹을 때 국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 반을 베어 무는 것보다는 한 입에 통째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로스트 덕 번은 부드러운 찜빵 속에 양념된 오리 고기가 들어있는 요리로 특별히 찜빵의 밑 부분이 맛갈스럽게 구워져 나온다.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다.

“매운 요리를 잘 먹는” 한국인 손님을 위해 캐빈 매니저가 추천한 요리는 뽕퐁 페퍼 소고기 (Beef with Long-Horn Pepper) 요리다. 매콤한 고추를 함께 볶아내 알싸한 매운 맛이 혀 끝을 감돈다. 빨강고 푸른 뽕퐁 페퍼의 색감이 요리를 더욱 맛갈스럽게 한다. 밥과 함께 먹다보면 어느 순간 한 공기를 푹푹 해치우게 된다고.

한편, 학생들이 즐겨찾는 스페셜 콤비네이션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제공되는 런치 메뉴다. 31가지 다양한 요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밥(흰밥 또는 볶음밥)과 ‘그날의 스프’ 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가격이 \$7.95.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한 끼 식사로 딱이다.

배달은 \$15이상 주문 시 가능하며 전화로 주문할 경우 배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팁은 별도).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에는 배달비와 팁을 모두 내야 한다.

덤플링 팰리스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다. \$20 이하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매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열어 설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네)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주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탈도도인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00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씨 뱀교회	978-274-2369
엠펙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유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티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티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중앙골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리엄드/역커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퍼스트우이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7/10
브루클라인 근방 세탁소에서 프레스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215-740-1025

7/10
세탁소에서 일하실분 구함 (프레스-오후 3시 이후 가능하신 분, 딜리버리) T. 617-840-1833

7/10
풀타임 아이들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실 분(월-금), 자동차 운전 가능하신 분, 영어가능자, 경험자 우대 myk@myk-d.com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or Sale - Nail & Spa

Owner retired, Well established Nail & Spa in business 15 years, 6 tables, 4 spa chairs, 3 facial/waxing room, Modern elegant decor, Steady clientele, Big cash flow, Clients list included, Asked for 85K.
Buyer call 781-329-2716 English or Chinese

For Sale Dry Cleaner Brookline Collidge Corner

Well established customer and road basd (since 1959) New "Eco-Friendly" dry cleaning machine, Asking \$299,000
Contact Carl T.617-577-9872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N[그로서리 매매]
그로서리 매매코저 합니다 Hot Food, 델리,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저 합니다. T. 501-753-1691

N[매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 면적 1,600sf T. 931-241-0415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공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N[매매]
메이컨조지아 근처 동양마켓겸 한식당매매 년매상 1밀리언 이상 건강상의 문제로 성공중인 한국마켓 및 안에 있는 한식당매매 현재 일하시는 분 7명 확실한 매상 수입, 전화문의 및 방문 환영 T. 615-714-8016

N[매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매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키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매매]
치킨링,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웨딩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예능 가수 강균성: 라디오스타에서 엘라스틴까지

(서울=LG 생활건강) 온라인 팀 = 아마도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서 강균성이 나왔을 때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한도전]의 "무도 큰 잔치" 특집에 강균성이 나왔을 때도 누군지 몰랐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테고요. 그런데 그는 [라디오스타]와 [무한도전] 출연으로 갑자기 모든 예능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강균성은 13년차 가수입니다. '최초의 모바일 가수'라는, 지금 생각하면 '사이버 가수 아담'을 떠올릴 정도로 유치한 타이틀을 선점하며 2002년에 데뷔한 4인조 남성 보컬 그룹 "노을"의 멤버죠. 당시 SK텔레콤의 모바일 서비스 준(June) 마케팅으로 대규모 홍보를 했었고요.

그룹 노을은 JYP 사단의 실력과 그룹 계열이었습니니다. 마치 SM 남자 아이돌 그룹이 H.O.T에서 신화, 샤이니에서 엑소로 이어지듯이 노을은 역시 JYP의 보컬 그룹 2AM의 전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데뷔곡 "붙잡고도"라는 노래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후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2집의 노래 "청혼"은 2003년에 발표한 곡이지만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알렉스가 그리고 같은 소속사의 2AM이 불려서 그 이후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노을의 최고 히트곡이라면 축가로 많이 쓰이는 이 노래일 겁니다.

사실 강균성은 데뷔 초부터 강호동의 [천생연분]이나 [무한도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유재석의 [천하제일 외인구단]과 같은 예능 출연을 해왔을 정도로 원래 오랫동안

그룹 내에서 예능 담당(?)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2002년, 2003년 자료를 잘 찾아보면 됩니다.)

하지만 노을의 노래가 인기를 얻지 못하자 노을은 JYP에서 방출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대로 된 히트곡을 내지는 못했고, 멤버들은 차례대로 군대를 다녀오며 노을의 활동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2014년에는 강균성이 트위터에도 알리며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의 방송 이후 사업은 성공하지 못

히트곡은 하나,
축가 부르는 13년차 가수

라디오스타 그리고
예능 대세 등극

13년간 준비된 행운과
노력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라디오스타]에서 김경호, 김장훈 등의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노을에서도 깨끗한 고음과 매우 높은 가성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성대모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프로그램 이후로 일순간에 예능 대세가 됐습니다. 노을은 음악 프로그램 여가져기 얼굴을 비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균성은 2013년까지는 짧은 머리를 유지하다가 2014년부터 갑자기 단발머리를 기르고 앞머리를 시

원하게 드러낸 헤어스타일로 방송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발머리는 여느 여성의 머릿결보다도 더 고왔지만, 처음엔 그 보다는 땅콩회항으로 유명세를 치른 항공사 부사장과 모습이 비슷해서 예능에서 그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능 대세'로 불리며 13년 동안의 무명 아닌 무명의 세월을 보내던 그가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라스틴 모델까지 따냈습니다.

간혹 남자들이 화장품이나 샴푸 광고를 맡는 이유는 대체로 아예 어울리지 않는 의외성이나 남자로서 깨끗한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균성은 고운 피부와 동안 그리고 여느 여성보다도 더 찰랑거리는 단발머리라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얻어낸 것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강균성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게 어떤 시청자들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고, 어떤 시청자에게는 호기심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노을을 좋아했던 팬들에게는 반가움이겠죠.

어찌 됐든 준비된 중고 신인의 노련함과 단발머리로 특이한 캐릭터를 구축한 강균성은 앞으로도 한동안 방송에 나올 것 같습니다. 노을의 노래도 조금씩 더 들려오겠죠. 그의 캐릭터가 간혹 지나치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 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10년을 넘게 기다린 사람이 노력하며 얻어낸 제2의 전성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승기,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배우 겸 가수 이승기의 신곡 '그리고 안녕' 이 온라인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10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이승기의 정규 6집 앨범 '그리고...' 타이틀 곡 '그리고 안녕' 은 올레뮤직, 엠넷, 소리바다, 지니, 몽키3, 네이버뮤직, 한터음반판매 순위 등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

'그리고 안녕' 은 '아직 못 다한 이야기', '우리 헤어지자', '결혼 해줄래' 등 이승기의 대표곡들을 탄생시킨 작곡가 김도훈과 의기투합한 곡으로, 오랜만에 심금을 울리는 '이승기표 음악' 의 진수를 펼쳐냈다는 평가다.

특히 호소력 짙은 이승기의 보이스

와 풍부한 감수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서정적인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들의 귀를 자극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이승기 정규 6집 앨범 '그리고...' 타이틀 곡 '그리고 안녕' 외에도 수록곡 모두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승기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앨범은 '처음 들어도 십년을 들은 듯, 십년을 들어도 처음 들은 듯' 이라는 콘셉트에 따라, 듣기 편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곡들이 담겨 있다" 며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이승기의 이번 앨범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kun1112@news1.kr



'복면가왕' 클레오파트라는 김연우?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복면가왕' 클레오파트라의 정체가 김연우인 것으로 힘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적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는 지난 7일 오후 4시50분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에서 '이 밤이 지나면'을 불렀다. 그는 경쾌한 무대로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무대가 끝난 뒤에는 앙코르 요청이 나오기도 했다.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는 "준비한 만큼 재밌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다. 결과는 모르겠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으나 방어전에 성공했다.

그의 무대에 김형석은 "클레오파트

라는 성악, 발라드, 록, 알앤비 모든 장르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장인이다. 기네스북 감이다"고 극찬했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그가 김연우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조장혁이라고 추측한 것이 맞았던 만큼 클레오파트라 정체도 김연우가 맞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복면가왕 클레오파트라 김연우, 정말 김연우일까", "복면가왕 클레오파트라 김연우, 진짜 김연우일 것 같다", "복면가왕 클레오파트라 김연우, 계속 보고 싶은 가수" 등 반응을 보였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6월 1일 ~ 6월 7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2.2%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0.7%
3	KBS1	KBS9시뉴스	18.5%
4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18.4%
5	KBS1	전국노래자랑	14.4%
6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4.2%
7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3.2%
8	MBC	무한도전	13.0%
9	KBS1	가요무대	12.8%
10	KBS2	해피선데이	12.7%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연속극(불굴의 차여사)
2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3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4	SBS	일일드라마(달려라 장미)
5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6	MBC	무한도전
7	SBS	리얼스토리 눈
8	KBS2	금토드라마(프로듀사)
9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 지켜라)
10	CJ E&M	삼시세끼 정선편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뱅뱅뱅 (BANG BANG BANG)	BIGBANG
02	WE LIKE 2 PARTY	BIGBANG
03	LOSER	BIGBANG
04	꺼내 먹어요	Zion.T
05	마음	아이유
06	LOVE ME RIGHT	EXO
07	BAE BAE	BIGBANG
08	넌 나의 집	포맨
09	Me You (Feat. 백예린 Of 15&)	San E
10	동네술집	허각, 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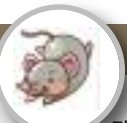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9	5	8	1					
7								4
	4			2	8		1	
2	8	6					5	
			8		3			
	7					4	8	1
	3		6	7			4	
8								7
					4	2	3	6

6월 14일 - 6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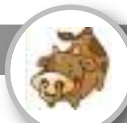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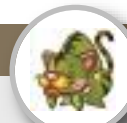
쥐띠 | 그때그때 풀어가도록

● 운수: 안개 속에 있으면 옷이 젖는 줄도 모르기 쉽습니다. 작은 사건들이 쌓이고 쌓이면 더 큰 문제가 되니 그때그때 풀어가도록 하세요. ● 금전: 잃은 후에 다시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조건이나 계산된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6, 18일 길일, 14, 2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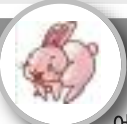
소띠 |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 운수: 심리적 불안감이나 일시적 충동에 의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중요한 때에 돈 문제가 신경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은 들어오지만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를 이해하고 싶어서 좋게 생각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4,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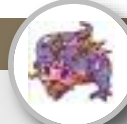
범띠 | 알차게 보낼 수 있는

● 운수: 바쁘게 활동하면서 알차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새 일을 만나게 됨으로써 수입이 늘게 됩니다. 의욕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 애정: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행운이 찾아옵니다. 상대에 대한 생각의 변화로 전보다 더욱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5, 20일 길일, 14, 1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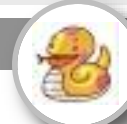
토끼띠 | 마음을 편히 가져야

● 운수: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발단이 되어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금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이 술술 풀릴 때도 있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 애정: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속이느냐고 좋아하는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6, 19일 길일, 14,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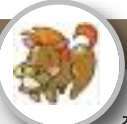
용띠 |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 운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고민을 하고 방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 금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바짝 들고 자신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고 있으니 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보다는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4,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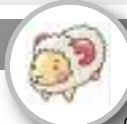
뱀띠 |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 운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뒷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 좋은 만남이 시작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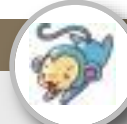
말띠 | 생각을 바꿔야

● 운수: 지금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 금전: 돈에 관한 가치관이 다른 문제로 부부나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람이 살아갈 때 큰 일이 헤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미세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를 멀어지게 한다는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5,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양띠 | 사랑도 타이밍이니

● 운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힘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 금전: 안정된 운세로 수입이 증가하고 금전적으로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입니다. 큰 욕심만 버리지 않으면 무난하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애정: 사랑도 타이밍이니 적합한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니 지금 잡아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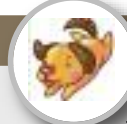
원숭이띠 |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어야

● 운수: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세요.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 금전: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지출이 많을 것입니다. ● 애정: 자식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부가 마음을 합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5, 17일 길일, 16, 1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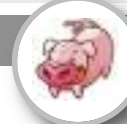
닭띠 |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 운수: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 금전: 쉽게 생각한 일에 의외의 함정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운 때이니 매사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야 합니다. ● 애정: 지금 냉정하게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8일 길일, 17, 20일 주의.



개띠 | 앞을 위한 준비 작업을

● 운수: 앞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좋은 정보가 얻게 됩니다. ● 금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바쁜 일이 많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큰 소득이 기대하기 어려우나 나가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 애정: 진공청소기처럼 나쁜 감정을 모두 빨아들이고 웃게 해주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 위안을 받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9, 20일 길일, 17, 18일 주의.



돼지띠 |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 운수: 애지중지 손에 잡고 있으면 소중한 것 같아도 손에서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 금전: 독단적으로는 해결하려면 늦어질 수 있으니 일을 해결하려면 재상자를 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츰 나아집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잠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20일 길일, 17, 19일 주의.

유재석, 종편 프로그램 진출의 의미

(서울=뉴스1) 명희숙 기자 = 유재석이 JTBC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서며 첫 종편 진출을 앞두고 있다.

JTBC측은 2일 "유재석이 신규 프로그램의 MC로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의 소재와 장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재석과 과거 KBS2 '해피투게더-쟁반노래방' 시절부터 호흡을 맞췄던 윤현준 PD가 진두지휘에 나선다는 것 만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종편 프로그램에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던 유재석의 첫 JTBC 진출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종편채널 개국 이후 많은 연예인들이 종편행을 택하며 초반 진통을 겪었다. 채널이 가진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대중들의不买를 맞기도 했으며 조기 종영 등의 굴욕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종편채널이 개국 1년을 넘어 점차 자리를 잡았고, 현재 지상파 못지않은 채널 파워를 키우고 있다. 그 과정에서 톱MC 유재석의



합류는 향후 JTBC 뿐만 아니라 다른 종편 프로그램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동안 지상파에서 주춤했던 톱MC중 한명인 신동엽이 종편프로그램과 케이블 채널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또 다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재석이 JTBC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신동엽은 '마녀사냥' 등으로 기존의 자신이 가진 장점을 더 깊이 있게 추구하며 지상파에서 굳혀졌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새로운 포지션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입담을 보여줬던 신동엽처럼 유재석이 향후 보여줄 신선한 매력에 귀추가 주목된다.

reddgreen35@news1.kr

탑-우에노 주리 드라마 첫촬영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탑 우에노 주리가 드라마 첫 촬영을 했다.

탑(최승현)과 우에노 주리는 CJ E&M과 일본 아뮤즈 INC.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한다. 두 사람은 10일 한국에서 첫 촬영에 나섰다.

탑과 우에노 주리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서로 다른 삶을 살던 한국남자 우현과 일본여자 하루카 두 남녀가 첫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첫사랑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지만 사랑을 믿고 싶은 남자 우현 역은 탑이, 여전히 사랑에 대해 대답하고 싶은 게 많은 여자 하루카 역은 우에노 주리가 맡았다.

탑 우에노 주리 드라마 소식에 누리꾼들은 "탑 우에노 주리, 잘 어울린다", "탑 우에노 주리, 첫촬영 잘했나", "탑 우에노 주리, 드라마 빨리 보고싶다" 등 반응을 보였다.

ppbn@news1.kr



옥주현 "이효리, 평생 결혼 안 할 줄 알았다"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옥주현이 이효리의 결혼이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옥주현은 10일 밤 11시15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최근 핑클 4명 다 모인 사진이 공

개된 것에 대해 "3년 만에 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옥주현은 "연락은 다 하는데 모여서 모습을 드러낸 게 오랜만이었다"고 했다. MC들이 "이효리 결혼에 배신감을 느꼈나"라고 묻자 "언니는 어

디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로 평생 있을 것 같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라디오스타'에는 옥주현, 신성록, 이지훈, 김수용이 출연했다.

ppbn@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렛미인5' 황신혜 "미인의 정의? 외모보다는 매력"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배우 황신혜가 미인의 정의를 내렸다.

황신혜는 4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진행된 스토리온 '렛미인 시즌5'(이하 렛미인5)에서 "미인이라 꼭 외모가 예쁘다기 보다는 매력있고 향기가 나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고 털어놨다.

그는 "인간적인 향기가 나고 매력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예뻐보이고 그게 미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례자들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누가봐도 너무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 있고 어떤 사례자는 기대 만큼 덜 예쁘게 나오기도 한다. 그 친구들의 말투와 밝아진 행동을 보면 그것만 봐도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렛미인5'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원자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메이크오버쇼다. 이번 시즌은 황신혜, 손호영, 이윤지, 최희가 진행을 맡는다. 오는 5일 밤 11시 30분 첫 방송.

reddgreen35@news1.kr



- #### 티보플레이 6월 1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MBC | 불굴의 차여사 |
| 2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3 | MBC | 딱 너 같은 딸 |
| 4 | SBS | 달려라 장미 |
| 5 | MBC | 여자를 울려 |
| 6 | MBC | 무한도전 |
| 7 | SBS | 리얼스토리 눈 |
| 8 | KBS | 프로듀사 |
| 9 | KBS | 가족을 지켜라 |
| 10 | CJ E&M | 삼시세끼 정선편 |

- #### 티보플레이 6월 1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KBS | 대단한 레시피 |
| 2 | CJ E&M | 렛미인 시즌5 |
| 3 | KBS | 초대형 쓰나미에서... 1,2부 |

- #### 티보플레이 6월 1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차이나타운 | 김혜수/김고은 |
| 2 | 장수상회 | 박근현/윤여정 |

'장수상회' 윤여정 "박근형과 45년 만에 로맨스 연기"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윤여정이 박근형과 제대로 로맨스 연기를 한 것은 45년 만이라고 밝혔다.

윤여정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장수상회'(감독 강제규) 제작보고회에서 "처음에는 오그라들었는데 반전이 좋았다"고 작품에 대해 말했다.

윤여정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하게 됐다가 다시 타이밍이 맞게 됐다. 강제규 감독이 한다고 해서 폭탄 터트리는 영화만 하는 사람인데 싶었다"며 "나는 강제규 감독 부인과 아주 친하다. 그래서 강제규 감독이 꺼려하겠따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다.

또 그는 상대역 박근형에 대해 "박근형 선생이 한다는데 로맨티스트로 요즘 뜨지 않나. 생각해보니 내가 23세 때 장희빈을 할 때 (박근형이) 숙종이었다. 그건 기록도 없다. 우리 둘만 사진 몇 장 갖고 있다"고 과거 인연을 밝혔다.

'장수상회'는 70세 연애 초보 성철과 그의 마음을 뒤흔든 꽃집 여인 금님의 가슴 떨리는 마지막 연애를 그리는 작품이다. 박근형, 윤여정, 조진웅, 한지민, 황우슬혜, 예소찬열, 문가영 등이 출연한다. 오는 4월 9일 개봉.

ppbn@news1.kr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6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정상가: \$39.99)

6월30일까지 모든 신규 가입자 (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6월 시청료 무료

Clean Site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멀티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l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면적 포함. Asking \$1.95 Mil
- 3. Belmont 멀티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6. 브루클라인 콘도:** 1베드 1베스. 그라지 파킹 포함. 최상의 위치 및 학군. 주말 오픈하우스. 1731 Beacon St Brookline Unit 113. Asking \$499,900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동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독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독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 8. 헤어 액세서리 카트 매매:**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대형몰안, 좋은 위치, 안정적인 수입. Asking 55,000 인벤토리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02회

유월의 숲에서 이는 바람처럼...

화려한 빛깔의 정리된 꽃보다는 흐드러지게 핀 들꽃을 유난히 좋아하는 나는 여전히 시골아이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라며 누렸던 바람의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참으로 다행이다 싶은 것은 이렇게 너른 미국 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四季)를 만나고 누릴 수 있는 미 동부에 산다는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 그 사계절을 맞고 보내며 계절과 계절의 셋길에서 만나는 바람은 내게 꿈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졸여오는 설렘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깊고 깊은 바람의 속을 만날 때마다 잠자던 감성이 일어나 나는 한참을 그리움에 울먹이기도 한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네 삶에도 봄을 지나온 그리고 아직 오직 않은 여름의 솔솔한 바람이 오가는 유월의 숲처럼 그렇게 평안한 유월의 바람이 불어주면 좋겠다고 말이다. 춤지도 덤지도 않을 만큼의 유월의 숲에서 이는 유월의 바람이 공간과 공간을 오가고 아우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 이처럼 우리네 삶 속에서 서로 마주하며 사랑하고 때로는 부딪치며 미워도 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

고 엮이지 않을 만큼에서 소화할 수 있는 통풍이 불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런.

우리는 가끔 착각하며 산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은 참으로 무지에서 온 결과다. 그저 다른 것뿐인데 생각은 그렇게 한다 하면서도 막상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면 차분한 이성온데간데 없고 울컥 감성이 튀어 올라 감정을 앞세우기 쉬운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쉬이 툭 던진 말을 뒤로 하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상대방에게 사과하듯 어찌 그 어리석음이 씻기고 닦일까 말이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그렇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던가. 사오십 년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세워 삶을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 한다면 어찌 그것이 쉬이 바뀔 일이겠는가. 이렇게 저렇게 상대를 바꿔보려고 아니 고쳐보

려고 애를 쓰다가 울컥울컥 화도 오르고 때로는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 별걱별걱 화를 올린다 보면 집 안에 큰소리가 가라앉을 날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현명한 사람은 내 생각 중심 안에서 밀어내지 않고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 가정은 평화와 평안의 길 진입로에 도착한 것이다.

이처럼 그 관계가 부부나 부모 형제가 되었던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더욱이 남남관계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그 관계가 오래간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 너무 편안하게 대한다면 나중에는 탈이 나는 법이다. 특별히 기분 좋은 말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조언을 할때도 마찬가지다. 그 밑바탕에 진정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부른 조언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뿐이다. 서로의 체면을 생각하며 얼굴 붉히기 싫어서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앙금은 남는 법이다.

그 어떤 곳이나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 모인 곳이라면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밀착되었거나 밀폐된 공간은 공기가 없어 숨이 막히고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와 서로 마주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거리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의 의미는 결국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오래도록 바라볼 수 있고 마주하며 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까닭이다. 서로의 마음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상처를 주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네 삶에서도 유월의 숲처럼 푸르름 가득할 수 있다면 참으로 기분 좋고 행복할 일이다. 우리네 인생에서도 유월의 숲처럼 싱그러울 수 있다면 더없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일이다. 그 유월의 숲에서 이는 바람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틈새'를 허락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삶이고 인생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생각처럼 쉽진 않지만, 유월의 숲에서 이는 바람처럼 나 아닌 다른 이에게 조금씩 공간을 허락하는 여유롭고 넉넉한 오늘이면 좋겠다. 그 오늘이 긴 인생 여정에서 더욱 푸르고 싱그러움을 소망해 본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종이지도를 펴시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비가 오셨다. 봄비인데, 봄 가뭄 끝에 내린 단비였다. 덕분에 해갈되었고, 날리던 꽃가루는 잦아들었다. 기온이 떨어졌는데, 풀빛이 짙어졌다. 잔디가 푸르러 간다. 감기 기운에 몸이 으슬거렸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
(이수복, 봄비 중에서)

‘역시 배운 사람이 낫군. 지도 한장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 오다니.’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장인이 감탄어린 찬사를 보냈다. 서부에 살 적에 내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그랜드캐니언을 찾아 가는 중이었다. 즐지에 아주 똑똑한

사위 되었다.
기억하시는가. 천관우 선생이 썼고,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기행문 ‘그랜드캐년’ 이다. 두어 문장만 따왔다. ‘K 형, 황막荒漠의 미개경未開境 ‘애리조나’ 에 와서 이처럼 조화의 무궁을 소름끼치도록 느껴보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랜드캐년’ 의 그 웅혼雄輝 괴곡한 절승絶勝 을 그 한 모퉁이나마 전해 드리려고 붓을 들고 보니, 필력이 둔하고 약한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그의 기행문 문장은 그랜드캐년 만큼 웅혼하다. 희미한 작은 흑백사진이 교과서에 실렸는데,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랜드캐년을 구경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저 머리 속에서 웅장한 그랜드캐년을 상상했더랬다. 이십여년이 흘러 멀리 봤던 그랜드캐년은 내 입에서

단 한마디. ‘아~아’ 라고 했을 적에도 모든 걸 답아낼 수 없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광활했고, 내 눈은 너무 작아 넓고 깊은 붉은 계곡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강 계곡은 깊어 볼 수 없었고, 먼 절승은 너무도 멀어 아득했기 때문이다. 글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사진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절경은 그랜드캐년뿐일 게다.

미국에 처음 와서 지도책을 구입했다. 그랜드캐년을 종이지도에서 찾아냈다. 엘로우스톤 또한 찾아냈다. 심심할 틈이 없을 때였는데도, 취미삼아 지도를 펴고 여행을 하곤 했던 거다. 지도 속 여행은 얼마나 달콤했던지,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었드려 들여다보곤 했다. 여기가 보스톤. 뭘, 뉴욕이 거기 있었어? 미국의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를 종횡무진, 종이지도 여행을 즐겼던 거다. 이젠 그런 지도책 위에 먼지만 쌓인다. 머리와 생각만으로 여행을 간다. 여행은 길을 떠나야 하는데, 그랜드캐년 여행도 마음 속으로만 길을 나서는 거다.

한마디 덧붙인다. 내게 인간의 최고 발명품을 꼽으라 한다면 내비게이터다. 하지만 그런 내비게이터에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구글맵만 쳐다보고 오고 가느라,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알 수 없다. 그저 지시대로 운전하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해 있더라 말이다. 한 번 기본 길이니 다음에 다시 찾아가라 한다면, 내비게이터 없이는 찾아갈 수 없다. 게다가 내비게이터를 이용하면 동서남북은 물론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도대체 어느 도시 옆에 어느 도시가 붙어있는지 윤곽을 잡을 수 없다는 거다. 내비게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거리의 미아가 될 게 뻔하다.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라. 종이지도를 한 번 쯤 펴서 쳐다보고 공부하고 가시라. 큰 그림이 보일 게다. 아참, 내비게이터는 따로 챙길 필요 없겠다. 스마트폰에 앱으로 있다.

‘꽃말을 세워두어라. 갔던 길을 잊지 않도록 길목마다 표를 해두어라.’ (예레미야 31:21, 공동번역)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2. 원주민과 유럽인과의 첫 만남 (4)

미국 본토 원주민과 유럽인과의 첫 만남 (계속)

1541년 봄 미시시피의 치카소족 원주민(Chickasaw)에게 200명의 짐꾼을 요구하면서 또 다시 큰 전투가 발생하여 스페인군은 약 40명의 인력을 잃게 되고 남아있던 장비 대부분을 잃었다. 데소토 부대는 그래도 탐험을 계속하였는데 북서진하여 미시시피 강에 도달하고 한 달간에 걸쳐 뗏목 등을 준비하여 오늘날 테네시 주의 멤피스에서 미시시피 강을 힘들게 건넜다. 1519년에 Alonso Álvarez de Pineda가 유럽인으로서 처음으로 미시시피 강을 봤으나 이 강을 건너가는 데소토가 최초였다. 멤피스에서는 이들의 도강을 기념하여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한 교량의 이름을 Hernando de Soto Bridge라고 부르고 있다. 1451년 10월에는 아칸소 주 서부지역을 탐험하던 동안 이곳 원주민인 툴라족(Tula)과 또 충돌하게 된다. 스페인 원정대는 툴라족 전사들이 매우 용맹스럽고 지혜로웠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들 원정대는 오클라호마까지 서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남동으로 방향을 틀어 미시시피 강으로 돌아왔다. 한편 1542년 5월에는 데소토가 강 서안 어디쯤에서 열

병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의 뒤를 이어 탐험 대장이 된 Luis de Moscoso Alvarado는 멕시코에 있는 스페인 군대의 본대로 돌아가기 위하여 서쪽으로 탐험을 계속하여 텍사스의 동쪽지역까지 갔다. 그러나 그쪽 지역은 날씨도 건조하고 농사짓는 원주민들도 별로 없는 등 탐험여건이 더욱 열악해져서 더 이상 진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마음을 바꿔 미시시피 강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마구와 노예용 쇠고랑 등 남은 쇠붙이들을 모두 녹여 못으로 만드는 등 힘들게 배를 만들어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가 멕시코 만에서 서진하여 멕시코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당초 기대했던 금은보화 노다지를 찾으려 했던 3년에 걸친 긴 여정이 끝나게 된다. 이 탐험으로 인하여 스페인 측으로서도 탐험대원의 절반이 사망하는 등 큰 대가를 치렀으며 원주민들은 훨씬 더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데소토의 탐험은 엄청난 상처만 남기게 된 실패한 탐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데소토 탐험대는 앞서 잠시 살펴보았던 휴먼덕문명의 한 갈래인 미시시피 문명을 처음으로 발견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이 되었다. 이들이 원주민에게 안긴 가장 큰 재앙은 전염병이었다. 데소토 일행

과 만났던 원주민들중 많은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가져온 홍역, 천연두 등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감염되어 많은 경우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도(Vasquez de Coronado)의 침입 데소토가 플로리다를 침입한 해로부터 1년 뒤인 1540년 2월에는 정복자 코로나도(Vasquez de Coronado)가 약 2천 명의 대부대를 이끌고 역시 황금의 도시를 찾아 미국 내륙으로 원정길에 오른다. 원정대는 2년간에 걸쳐 애리조나와 뉴멕시코를 거쳐 캔사스까지 갔다 왔으나 금은 구경도 못하고 죽을 고생만 하였다. 원정 중에 식량을 뺏기 위한 전투를 벌여 푸에블로 인디언 수백 명을 죽였는데 이 시점을 인디언 살육전쟁의



(데소토의 원정 루트)

본격적인 시발로 보고 있다.

3. 유럽인들의 정착촌 건설 스페인의 정착마을 건설

미국 본토내 최초의 정착촌은 1565년 스페인에 의하여 세인트어거스틴(St. Augustine)에 건설되었다. 이 무렵 프랑스도 이 지역에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애썼으나 스페인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스페인은 이지역의 식민지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경쟁국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672년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군사 요새를 건설하였다. Castillo de San Marcos(훗날 Fort Marion로 이름을 바꿈)라는 이름의 이 성채는 미국내 가장 오래된 석조 요새로 알려져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뒤에 얘기하게 될 제로니모를 포함한 아파치족의 전설적 게릴라들의 가족들이 이 성채에 1886년 10월에 감금된다.



(Castillo de San Marcos (훗날 Fort Marion로 바꿈))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85 최홍희와 태권도(7)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자신의 태권도(ITF)를 재보급하였으며 회원의 가입 허용을 받았다. 그 와중에서 최홍희가 사망하면서 ITF는 분열되었다. 그의 아들 최중화 총재가 이끄는 ITF, 북한 IOC위원인 장웅 총재의 ITF, 베트남계 캐나다인인 트란관 총재의 ITF 등으로 3등분 되었다. 즉 최홍희가 사망한 후 ITF는 아들 최중화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총회(2002년 11월)에서 새 총재로 선출했다(2001년에 최중화를 새 총재로 세웠고 이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확정 절차로 보인다. 하지만 장웅은 2002년 6월 평양에서 최홍희가 사망하면서 추모식에 모인 몇몇 인사들과 세를 규합하여 ITF의 총재가 되면서 이원화가 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역시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트란관의 ITF가 분열되면서 삼분화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최중화는 자칭 ITF의 적자임을 내세웠지만 모든 회원들이 그의 리더십에 따르지 않고 분열된 것이다. 그는 선친의 사업을 이어받아 2004년 국내(대전)에서 48개국의 ITF 회원국 2,6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면서 ITF의 건재를 입증하였다. 123) 그리고 WTF와 ITF의 통합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국제 태권도계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2008년 ITF의 본부를 우리나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캐나다 국적의 그는 그해 2008년 9월 23일 전향 귀국하였다.

당시의 ITF에 가입 회원국을 120여개 국이 있으며 4,00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박종수 부총재가 장웅의 ITF에서 최중화의 ITF로 2011년 이적하였다. 박종수에 의하면 최홍희 장군은 “김운용을 견제해 ITF를 지켜 태권도를 하나로 만든데 도움이 된 인물이 장웅이다” 라고 했기에 장웅이 총재가 되어 ITF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며 장웅과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북한의 장웅이 총재가 되어 활동하는 ITF는 노동당 통일선전부가 장악하여 그 세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박종수의 이적으로 국제사회의 ITF는 북한을 제외하고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최홍희가 없는 ITF는 선장없는 배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세계 태권도계에 투영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3,0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지만 그것들은 자신들의 주장이며 객관적인 통계는 확실하지 않다. 최홍희의 부재 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을 비롯하여 세계 태권도의 모든 영역을 공인하여(모든 국제스포츠 기구들로부터) 장악하여 운용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의 활동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ITF는 그 창시자와 함께 이름만 남기고 살아질 것인가?

최홍희는 말년에 위암으로 투병했으며 상대적으로 의술이 더 좋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닌 북한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와지면서 조국(Korea)에 묻히고 싶으면서 남한과 북한에 의사를 타진하였다. 남한으로 부터는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들었고 북한은 그의 의사를 수용하였다. 그는 평생을 목숨과 같이 사랑한 태권도와 관련한 모든 ‘족적’을 북한에 기부하였고, 2002년 6월 15일 평양에서 사망하여 혁명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

그가 작명한 ‘태권도跆拳道’,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수 많은 무예가 나타난다. 각기 다른 무예로 또는 같은 무예가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물론 그중에는 지금까지 전수되어 수련되는 무예도 있지만 시간적인 변천에 의해 명명하는 이름들, 과연 ‘태권도’란 명칭은 얼마나 오래갈까?

123) 이 대회를 비롯하여 2008년 최중화의 한국 방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오창진이다. 그는 ITF 한국 지부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최중화를 중심으로 ITF가 한국에 알려지는데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 나중에는 최중화가 그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검찰에 고소를 하기도 했다.



브라이트 소재 저렴한 기숙사

무술 연마와 기숙생활 함께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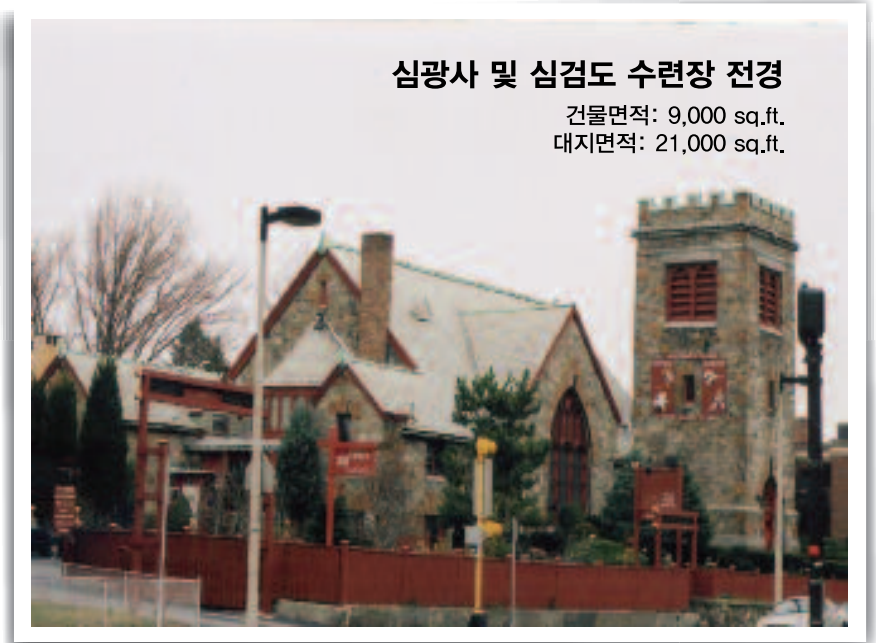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20분 예불후 조식, 각자 학교 및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각자의 종교 생활(기독교, 천주교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 \$950

조식, 석식 및 수련비 월\$120 포함

단기숙박 가능: 3개월(월\$1,200), 6개월(월\$1,100)

- 주차 가능 (월 \$100 주차비)
- 실검도 18개월 수련후 단증 수여
- 매월 첫째 금요일 저녁 6시-7시 30분 무료 참선
- 전화 연락후 상시 방문 가능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오픈 하우스)
- 전화번호: 617.787.1506



심검도 창시자 김창식 (원광 스님)
41년째 심검도 전수 및 제자 양성

심검도 회원 모집

심검도 검법, 심법

종교와 관련없이 수련 가능

(불교 신앙 생활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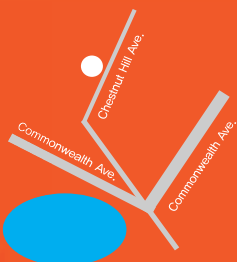
수련비: 성인 월\$120, 어린이 월\$75

성인18개월, 어린이36개월 수련후 단증 수여

수련 시간

어린이: 화, 목요일 오후 5-6시(심법)
수요일 오후 5-6시(검법)
토요일 오전 9-10시(검법)

성인: 월-목요일 오후 6-7시30분(검법, 심법)
토요일 오전 10-12시(검법, 심법)



617.787.1506

203 Chestnut Hill Ave. Boston, MA 02135
www.shimgumdo.org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인(仁)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사도 요한)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Jesus answered, “If I want him(John the disciple)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You must follow Me.” - 요한복음 21:22

14일~18일까지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방문 스케줄이 취소됐다. 한국의 청와대는 “국민이 아직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메르스 조기종식 등 국민안전을 챙기기 위해” 박 대통령의 미국 출장을 연기했다.

박 대통령의 미국 출장 연기는 “사전에 미국의 이해를 구했으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일정을 재조정키로” 두 나라가 합의했다.

박 대통령 출국을 4일 앞두고 방미일정을 재조정한다는 것. 극히 드문 일이다.

결국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가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까지 발목이 잡히는 부작용을 끌고 온 셈이다.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박 대통령이 안심하기엔 신경을 늦추기 힘들다는 것.

그보다는 국민안전보다 메르스 문제를 두고 외국방문을 우선시(視)한다는 여론이 박 대통령에게 브레이크를 걸었을 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 연기는 문제가 있다.

메르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접어야 할 만큼 치명적인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공포에 지나치게 놀려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WHO(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도 10일 서울, 경기 등의 초등학교 휴교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다”며 수업하도록 권고했다.

박 대통령은 4박 5일 스케줄을 2박 3일로 조정하는 일정을 막판까지 검토했다.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한.미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수석의 미국방문 사이에 잡

혀 있었던 것.

아베 총리는 4월 방미 때 미일 신동맹(美日新同盟) 시대를 열었고 시주석 역시 오는 9월 오바마 대통령과 새로운 미.중관계를 협의할 것이다.

이런 주변국동정에서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났다”는 사실 만으로도 중.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2박 3일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일정취소는 메르스 치유 해법만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대통령이 꼭 청와대를 지키는 것이 메르스 치유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연기가 양국의 우호에 부정적일 수는 없다. 한미 두 나라의 관계가 그토록 허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대중의 정서와 여론을 쫓느라 중대한 외교 스케줄을 미리 포기하는 예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든든한 받침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잡혀주는 믿음,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적 위기에 든든한 “사랑의 샘(泉)”으로 끊임없는 대중들의 목마름을 시원케하는 청량제적(淸涼劑的) 빛으로 지켜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 역할의 밑거름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뿌리는 하늘과 땅을 두루 관리하시는 예수님의 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인은 목숨이 끊어져도 사는 것이다. 죽어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永生)의 길을 따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요한복음 11:25-26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인이다.

인인: 茲也자야 - 인자할 인. 茲자: 草木盛貌초목성모 - 풀과 나무가 우거진 모양을 그린다.

仁은 “두번째(二) 사람(人)”을 뜻한다. “첫번째(-)가 하나님”이시니 그의 아들 예수님이 두번째인 것은 당연하다.

사람(人)은 누구나 부모(父母)가 계신다. 그런데 인자(人子) 예수님은 어머니는 마리아(Mary)가 사람인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성령(聖靈)으로 임태” 시키셨다.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His(Jesu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 마태복음 1:18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 - which means God with us.” - 마태복음 1:2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해서 仁자는 인자(人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그림이다.

이 글자가 땅에서는 仁으로 그려지지만 하늘에서는 ‘天:하늘 천’으로 표한다.

하늘에서 두번째(二) 사람(人)이 땅에 오시

니 “하늘과 땅을 다 관여하는 사람(仁)”이 되시니 ‘二人(이인)’ 자가 아니고서는 보이는 인간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임마누엘일 수가 없다.

성경에 임마누엘(仁)은 인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Isaiah) 선지자가 예언했었다.

“주께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Immanuel.” - 이사야 7:14

뿐만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임마누엘은 창세기에 언급됐었다. 피조된 인간의 오만스러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영원한 사랑은 늘 피조된 인간을 따라다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and wherever you go, and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 창세기 28:15

이 대화는 하나님과 야곱(Jacob)과의 말씀이지만 인간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에게(여호수아 1:5) 솔로몬에게(역대상 28:30) 소망과 격려를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仁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인결사(仁決士)” 이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던가? 그리스도의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도 못하면서.



Summer 2015 Program
Sign Up Now!

Essay Writing Workshops: Middle and High School

Make essay writing easier for you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Enroll your student in a ReadWrite essay workshop where students study the elements of a quality essay and prepare, write and revise up to two essays in class.
\$150 per week/ \$125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Monday to Friday 9:00 to 11:00 AM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Summer Days Program: Grades 3 to 8

Our Summer Days program offers kids summer fun while they continue to build their reading,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skills. In between outdoor activities and creative projects, kids read, discuss readings and write related essays.
\$270 per week/ \$250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Monday to Friday 9:00 to 3:00 PM
Before care and extended day options available.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Weekly Year-Round Classes: First Grade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practice essay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and reading skills in a small class. Students improve writing skills by drafting, revising and polishing persuasive essays, opinion pieces, narratives and more. Our curriculum and class size are structured for open enrollment, and ensure that each student's needs are met. Classes are held year-round.
Class schedules can be found at:
<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
Classes: (Grades 1-12)
 • Reading/Writing Workshop (1-4)
 • Literary Analysis (5 to 8)
 • Expository Analysis (5 to 10)
 • Intensive Essay Writing (High school)
 • Tutoring: SAT, ACT, ISEE, SSAT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김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6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6월 30일까지(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6월 시청료 무료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86)

생각하지 못했던 투자 실수

투자하며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합니
 다. 실수 하나를 놓고 보면 큰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회
 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투자손실로 이어집
 니다. 투자자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투
 자 실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투자하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노후를 위해서 하는 투자는 2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를 정기적금이나 단기간 채권, 등에 투자
 한다면 실수하는 투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 물론 5년 후 집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라
 면 많은 위험성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러나 노후를 위한 투자를 정기 적금 등에
 투자한다면 물가상승률만큼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은퇴자금, 학자금, 집, 등 투자하는 목적
 에 따라 투자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뚜렷
 한 투자 목적이 없다면 투자 대박을 기대
 하고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는 잘못된 투자
 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 따라서 하는 투자:

직장동료, 장인어른, 골프친구 등으로부
 터 투자 조언을 받으며 투자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만병통치약을 구하듯 좋은 투자
 종목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식 전문가도
 대박 나는 종목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제대로 하는 투자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
 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산, 나이, 위험성
 , 등을 고려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운
 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고 팔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주식을 팔고 채권
 에 투자합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그 반대
 로 합니다. 주식에서도 사고팔고를 되풀이
 합니다. 2014년 말 해외 주식 투자 종목이
 하락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새해 들어
 해외 종목이 8% 이상이나 상승했습니다.
 그야말로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잘
 못된 투자를 반복합니다.

사고팔 때는 기분이 흥분되고 재미있을
 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

라 투기입니다. 필 샘얼슨(Samuelson)은
 “제대로 하는 투자란 페인트가 마르는 과
 정을 지켜보는 것 혹은 잔디가 자라는 것
 을 보는 것” 이라 언급했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재미가 없어야 합니다.

집중투자: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의료보험도
 회사에서 받습니다. 은퇴자금도 회사 주식
 에 투자합니다. 모든 것을 한 곳에 집중투
 자합니다.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텍사스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 엔란(Enron) 회사에서 일했습니
 다. 401(k)을 회사 주식에 집중투자했습니
 다.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뉴스에 너무 민감:

주식 전문가는 끊임없이 주식시장을 예
 측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날 주식시장
 이 폭락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
 다. 사실 단기간에 일어나는 주식시장 변

화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은퇴하기까지
 혹은 은퇴 후 생활이, 삼십 년의 생활은 장
 기간입니다. 현재 다우지수가 18,000입니
 다. 20년 전 다우 존스는 3,000이었다는 사
 실을 기억하면서 10년 후 다우지수를 가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저축:

은퇴하면서 노후대책으로 너무 많이 저
 축했다고 불평하는 사람 아직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 대부분이 젊었을 때 더 저축하
 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60,000 연봉에 10% 저축, 즉 한 달에
 \$500씩 저축하여 9% 이자를 받으면 30년
 후 \$900,000이 은퇴자금입니다. 같은 연봉
 에 15% 저축하면 \$1,340,000으로 백만장자
 가 됩니다. 단 5% 더하는 저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5%를 한 번에 더할
 수 없다면 매년 1%씩만 늘려나가기 바
 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법이야기 - 행방이 모호한 배우자와의 이혼/이혼 관할권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저
 희 로펌에 가정법 케이스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 배우자의 거주지나 행방을
 알지 못하시지만, 여러 사유 및 상황상 이
 혼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 이혼이 가능한
 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
 다. 실제로 수년 혹은 수십 년 간의 오랜 별거
 기간, 일방적인 연락 두절 또는 다른 여러
 사정으로서의 거주지나 소식을 알지 못
 하는 경우에도 뉴욕법과 뉴저지법상 합당
 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
 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뉴욕법과 뉴저지법
 의 이혼 케이스 관련 관할권과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시 이혼을 진행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및 이혼 관련된 부분은 미 연방법
 이 아닌 각 주마다 다른 법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 주마다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 가정법원이
 있으며, 각 주 법 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

측 배우자가 모두 같은 주에 거주하고 있
 지 않더라도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주 법원의 이혼 판결은 미국 내의 모든 주
 에서 유효하며, 'comity' 라는 법적 원
 칙에 의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
 됩니다. 실제로 한국 대법원도 미국 Ore-
 gan 주 법원의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판
 결을 승인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에서는 Oregon 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가 한국에서 새로운 이혼 및 친권자
 , 양육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국 대법
 원은 관할 미 법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
 정한 판결을 내렸음을 근거하여 기각했습
 니다.

그렇다면 뉴욕, 뉴저지 법 상 두 배우자
 가 한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혼
 시 주 가정법원의 관할권을 충족할 수 있
 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
 욕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욕 주에서
 혼인을 했으며, 그 중 한 배우자가 이혼소

송 제기 시, 뉴욕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
 로 거주함; (2) 뉴욕 주에서 부부로 거주한
 적이 있으며, 그 중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 시, 뉴욕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
 주함; (3) 이혼 사유가 뉴욕 주에서 발생했
 으며, 뉴욕 주에서 부부로 거주한 적이 있
 으며, 그 중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시,
 뉴욕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 또
 는 (4)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시, 뉴욕
 주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 뉴저지
 주의 경우, 이혼사유가 간음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중 한 분이 이혼소송
 제기 시 뉴저지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으로써 관할권을 충족할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
 나 행방을 아실 수 없더라도 뉴욕과 뉴저
 지 가정법원에서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송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이혼
 절차에서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송장 접
 수와 법적 절차가 시작됨에 대한 통지함으

로 상대가 법정에 출두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ser-
 vice' 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소식을 전할 길이 없다면, 법원
 의 허락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신문에 광
 고를 하거나, 배우자에게 그를 전할 수 있
 는 사람에게 대신 전달을 하는 등 특별한
 방법으로 피고인 배우자에게 service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
 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
 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
 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
 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
 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www.songlawfirm.com



7080 그룹사운드 보스턴 콘서트



그 시절 그 추억을 한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장계현 (장계현과 템페스트) : 잊게해주오, 파도, 그리운건 너
- 함중아 (함중아와 무서운 아이들) : 내게도 사랑이, 풍문으로 들었소.....
- 최이철 (사랑과 평화) : 장미, 한동안 땀 했었지
- 이창환 (건아들) : 젊은 미소, 불놀이야, 구름과 나
- 유영춘 (영사운드) : 등불, 달무리
- 이천행 (딕페밀리) : 나는 못난이, 작별, 흰구름 먹구름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6:00 PM

Woburn High School Auditorium

88 Montvale Ave, Woburn, MA 01801

입장권 : \$60.00

티켓예매 : 보스턴 한인회 781-933-8855

주최 : 보스턴 한인회

본 행사의
모든 수익금은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협찬



주 보스턴 총영사관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전미 태권도 교육재단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2) 쟁어판결, 펜타곤 페이퍼, 그리고 ...

지난주에 등장했던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판결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판결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전무후무” 한 판결은 아니다. 수정헌법 제 1조에 종교,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와 함께 나란히 등장한 “언론의 자유” 에는 영국 식민지 시절 판결 중 하나였던 쟁어 판결 Zenger Case의 역할이 크다.

쟁어 판결 (Zenger Case, 1735)

영국 식민지 시절이던 1734년 어느날, 존 피터 쟁어(John Peter Zenger)라는 출판업자가 구속 수감되었다. 쟁어는 18세기 초반 독일에서 식민지 뉴욕으로 이주해 온 인물로, 인쇄소 등에서 일하다가 후에 뉴욕 위클리 저널 (New York Weekly Journal)의 설립자이자 발행인이 된 인물이다.

뉴욕 위클리 저널이 창간되기 전의 뉴욕 언론은 언론이라기보다는 식민지 총독을 위한 일종의 ‘기관지’ 역할을 할 뿐이었다. 이에 쟁어가 1732년 창간한 뉴욕 위클리 저널은 식민지 정부에 대한 “신선한 조언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 총독 윌리엄 코스비 (William Cosby)는 “난폭하고, 짜증나며, 예의라곤 없는” 덕에 인기 없는 인물이었기에, 코스비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쟁어를 금전적으로 후원했고 뉴욕 위클리 저널의 지면에 코스비의 무능과 부패 등을 조롱하고 질타하는 기사들을 기고했다.

쟁어가 체포된 이유는 바로 쟁어가 발간하는 뉴욕 위클리 저널에 게재된 그 기사들 때문이었다. 총독 코스비는 이 기사들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따라서 당시 영국 식민지에 적용되던 선동금지법 (Sedition Act)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쟁어를 구금했다. 이 당시 선동금지법은 식민지 총독을 비방하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상관없이 명예훼손에 의한 선동, 즉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쟁어를 처벌함으로써 코스비 대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고자 했던 의도가 다분했을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쟁어에게 불리하기 짝이 없는 재판이었으나, 놀랍게도 배심원단은 쟁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코스비의 정적들이 고용한 변호사 앤드류 해밀턴 (Andrew Hamilton) 등이 “문제의 기사들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수 없다. 누구도 정부에 대한 진실하고 공정한 비판을 이유로 처벌받아서 안된다”는 논리로 배심원단을 설득했던 것.

뉴욕타임즈의 펜타곤 페이퍼 (Pentagon Papers)

쟁어 판결은 미국사에서 언론의 자유가 법정에서 승리한 첫번째 케이스로 기억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 1조가 언론의 자유를 못박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물론 쟁어 이후 대법원 판결이 항상 언론의 자유를 옹호

하지는 않았다.

가령, 1919년의 쉘크 판결 (Charles Schenck v. United States, 1919)은 “수정헌법 제 1조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clear and present danger)가 있을 경우 언론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1차 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미국 사회당 인사들에게 1918년 선동금지법에 기반하여 유죄를 판결했던 법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점에서 보자면 일명 “펜타곤 페이퍼 판결”로 불리는 뉴욕타임즈 대 미국 판결 (New York Times v. U.S., 1971)이 언론의 자유 확대에 기여한 공이 결코 작지 않다.

1971년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베트남전 참전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숨은 이야기들)이라는 제하에, 베트남전에 참전과 관련하여 미국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방부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다니엘 엘스버그 (Daniel Ellsberg)가 유출시킨 문건에 바탕한 이 기사가 사실상 정부의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여론을 확산시켰다. 펜타곤 페이퍼는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1964년보다 훨씬 이전에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었으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던 사실, 베트남에 대한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라오스를 폭격했던 사실 등 민감한 기밀들을 폭로했

다.

집권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뉴욕타임즈의 펜타곤 페이퍼가 전달한 진실은 국익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닉슨 행정부는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펜타곤 페이퍼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뉴욕타임즈는 6:3으로 승소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방종

한국이건 미국이건 언론의 자유는 소중한다. 언론은 부족한 자질의 지도자가 저지르는 무능과 부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쟁어 판결), 공권력이 남용되는 현실에 눈감지 않도록 (설리반 판결), 그리고 국익이라는 이름의 국가의 과오를 가리지 않도록 (펜타곤 판결) 하는 등등의 이유로 자유를 부여받았을게다.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항상 정의이고 진리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리고 언론은 항상 옳다는 결론을 주입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설리반 판결 (1960), 쟁어 판결 (1735), 펜타곤 판결 (1971)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유 중의 하나로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묵직한 생각을 하게 해준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여 받은 언론의 자유를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명 기레기 언론의 존재 덕에 오늘 칼럼은 어쩐지 무거운 마음으로 마감하고 있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2015년도 미국 명문 대학 정규 지원 결과 분석: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지난 2014-2015년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의 조기 입학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여타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많은 관계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올해 (2015-2016) 조기 지원 모집에 있어서의 높은 지원 경쟁에 대한 예상이 이미 있었다. 결국, 숫자상으로 비교해 보면, 다트머스 대학의 올해 조기 지원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1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는 또한 정규 지원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심한 눈치 작전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학교로 지목이 되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의 지원자 현황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약 2,000명 이상의 지원자 수가 올해 정규 과정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조기 지원자들 사이의 심한 경쟁 구도가 결과적으로 정규 지원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 지원자 수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총 20,504명이 지원 신청하여, 이들 중, 총 2,120명의 학생들이 입학 허가 통지를 받게 되었다. 여기에는 조기 지원에서 입학 허가 되었던 483명의 학생들(총 1,859명이 지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선발된 이들 2,120명 합격자들의 최종 학교 등록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약 50.4%의 등록 기록을 보이며, 대학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60%의 등록율보다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기자 명단에서 무려 93명의 합격생을 추가 발표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비해서 각 연도별 신입생의 지원률이 조금은 불규칙한 상태로 확인이 되며, 이는 또한 내년 입시에 조기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중심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게도 한다.

실제 다트머스 대학은 뉴햄프셔 주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역의 공동체 생활을 함께 즐기며 야외 활동에

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호하였다. 동시에 여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이면서 아카데미에 대한 확실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는데 노력하는 대학이다. 특히, 올해 다트머스 대학에서는 신입생 리쿠르트를 위해서 인턴쉽과 교환 학

생 프로그램들의 기회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격려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을 다트머스 커뮤니티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활용할 의지가 높은 학생들에게 입학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자.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네일살롱, 새 장비들, 매매가격 \$6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45,000 매매가격 \$40,000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매매가격 \$50,000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90,000 매매가격 \$30,000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매매가격 \$99,000 32년만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3주단위,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3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5년 이상의 강의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7.13~8.21
(3주단위,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